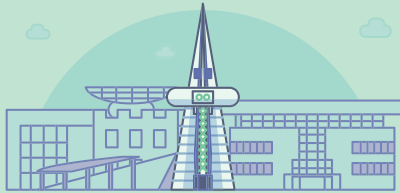


2022



대전은
스토리
투어



대전스토리투어 소개

기간 2022년 4월 9일(토) ~ 12월 3일(토)

유형별 시간 및 코스 : 4개 유형 15개 코스 / 56회

- ▶ 마을여행(4코스) : 토(09:30~13:00 / 13:30~17:00)
- ▶ 새벽투어(5코스) : 토, 일(05:00~08:30)
- ▶ 야간투어(3코스) : 평일, 토, 일(18:00~21:00)
- ▶ 역사투어(3코스) : 평일, 토, 일(09:30~13:00/13:30~17:00)

출발장소 및 이동수단

- ▶ 대전시청역 1번출구 앞(차량) : 마을여행(①②③), 새벽여행(⑤⑥⑦⑧⑨), 야간투어(⑩), 역사투어(⑬⑭⑮)
- ▶ 옛충남도청 1층 앞(차량) : 마을여행(④), 야간투어(⑫)
- ▶ 대동역 6번 출구 앞(도보) : 야간투어(⑩)

※ 단체(15명) 신청의 경우 원하는 장소에서 출발 가능.

스토리투어 참가 인증제

● 금메달 6회 이상, ● 은메달 4회 이상, ● 동메달 2회 이상

참가비 : 1인 5,000원 ※ 당일 현금 납부 / 비대면 : 무료

모집인원 : 코스별 15명 내외(단체 15명 이상)

제공하는 것 : 간식, 대전스토리북



참가신청



대면 투어 예약하기

<https://forms.gle/WP4tt2eQjsNXjH5X9>



비대면 투어 예약하기

<https://forms.gle/6abBodnMnu9uRBkaA>

▶ 대전스토리투어 밴드 : <https://band.us/@storytour2017>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 대전스토리투어 검색 후 예약하기

문의 : 042-252-3305 / 핸드폰 010-4553-7650

※ 공지 : 여행자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차량 관련 이외의 사고는 개인 보험으로 처리.

주최 |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주관 | 가평고도 특별단 여행
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
D.E.T. COOP



2022 대전스토리투어 유형과 코스

마을여행(14회)

- 중구** ① 대흥동 테마마을 테마마을박물관 → 대사동느티나무 → 테마오래 **비대면**
- 대덕구** ② 대화동 등대마을 대화어린이공원(등대공원) → 대화동 벽화 → 대화동 골목여행
- 서구** ③ 흑석동 거문들마을 흑석동 시민공유공간 거문들 → 금평 마을미션탐험
- 동구** ④ 대청호 수물마을 주산동 → 추동 → 마산동

새벽여행(20회)

- 서구** ⑤ 영원히 대를 이어 살만한 갑천
봉곡동 야실마을 → 갑천독방 산책 → 평촌동 증촌느티나무 → 마을카페
- 중구** ⑥ 독방을 거닐며 버드내 새벽 산책
유등천 상류 침산동 대전시계 → 무수동 유희당과 권이진 or 단재 신채호 생가
- 대덕구** ⑦ 대청호에서 해맞이 해볼래? **비대면**
삼정생태공원 이촌, 강촌 or 로하스캠핑장 대청정 산책 → 차윤주, 차윤도 정려각 → 금강 해피로드
- 동구** ⑧ 아름다운 호수 대청호의 숨은 이야기
비룡동줄곧장승 → 주산동 전망대 or 명상정원
- 유성구** ⑨ 북쪽 끝마을 쇠여울에서 금강을 거닐다
쇠여울마을 → 금강 독방길 → 봉산동 느티나무

야간투어(11회)

- 중구** ⑩ 하늘과 별이 가까운 대동 하늘공원 **비대면**
대동 벽화마을 → 대동하늘공원 해넘이 → 카페
- 서구** ⑪ 환상의 빛 갑천반딧불이
괴곡동느티나무(천연기념물) → 봉곡동 야실마을 → 갑천 늦반딧불이 서식지
- 서구, 유성구** ⑫ 갑천 엑스포 야경투어
한밭수목원 → 엑스포다리 → 한빛탑 음악분수와 미디어파사드

역사투어(11회)

- 중구, 동구** ⑬ 대전 100년 여행
옛대전형무소 → 구)동양척식주식회사대전지점 → 인동시장(3.16만세) → 대전근현대사전시관
- 중구** ⑭ 신채호와 권이진을 만나다 **비대면**
유등천 상류 침산동 대전시계 → 무수동 유희당과 권이진 or 단재 신채호 생가
- 대전시** ⑮ 원하는 대로 맞춤형 여행
주제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여행코스'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비대면 여행

- 중구** **마을여행** ① 대흥동 테마마을
- 대덕구** **새벽여행** ② 대청호에서 해맞이 해볼래?
- 동구** **야간투어** ③ 하늘과 별이 가까운 대동하늘공원
- 중구** **역사투어** ④ 신채호와 권이진을 만나다

2022 대전스토리투어 소개 02
2022 대전스토리투어 운영코스 04

마을여행

1 코스 대흥동 테미마을 **비대면** 12
1. 테미마을박물관 13
2. 대사동 느티나무 16
3. 테미오래 17

2 코스 대화동 등대마을 18
1. 영심이 벽화골목 투어 19
2. 대화동 마을탐방 19
3. 원명학교와 정화원 21
4. 등대공원 22

3 코스 흑석동 거문들마을 23
흑석동 24
1. 명곡소품관 25
2. 흑석동 시민공유공간 거문들 26
3. 우명동 짚풀공예전시 체험장 27

4 코스 대청호 수물마을 29
1. 주산동 황새바위길 31
2. 추동 초콜릿정원 33

새벽여행

5 코스 영원히 대를 이어 살만한 갑천 36
갑천(甲川) 37
1. 봉곡동 야실마을 40
2. 평촌동 증촌 느티나무 43
3. 영화 클래식 촬영지 46

6 코스 독방을 거닐며 버드내 새벽산책 49
유등천 50
1. 유등천 침산동 대전시계 51
2. 단재 신채호 생가 53
3. 단재 신채호 동상 55

7 코스 대청호에서 해맞이 해볼래? **비대면** 56
대청댐 57
여수로댐 58
대청호오백리길 58

1. 삼정동 이촌, 강촌마을	59
2. 차윤주, 차윤도 정려각	60
3. 금강 해피로드	61
8코스 아름다운 호수 대청호의 숨은 이야기	63
1. 비룡동 줄곧장승	64
2. 주산동 해맞이 전망대	66
9코스 북쪽 끝마을 쇠여울에서 금강을 거닐다	68
1. 금탄동 쇠여울 마을	69
2. 금강 독방길	70
3. 봉산동 느티나무	71

야간투어

10코스 하늘과 별이 가까운 대동 하늘공원 비대면	76
1. 대동 벽화마을	77
2. 대동 하늘공원	78
11코스 환상의 빛 갑천반딧불이	83
1. 괴곡동 느티나무(천연기념물)	84
2. 봉곡동 야실마을	87
3. 갑천 늦반딧불이 서식지	87
12코스 갑천 엑스포 야경투어	90

1. 한밭수목원	91
2. 엑스포다리와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93
3.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음악분수와 미디어파사드	94

역사투어

13코스 대전 100년 여행	98
1. 옛대전형무소터와 망루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99 106
2. 괴곡동 느티나무(천연기념물)	109
3. 구)동양척식주식회사대전지점	112
4. 인동시장/만세운동기념비	113
5.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충청남도청구본관	116
14코스 신채호와 권이진을 만나다 비대면	118
1. 단재 신채호 생가	119
2. 유희당과 권이진 유희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 광영정(光影亭)	119 120 122 122
15코스 원하는 대로 맞춤형	124
2022년 비대면 미션형 대전스토리투어	125

2022
대청호스토리
투어

마을여행

- 1코스 대흥동 테마마을
- 2코스 대화동 등대마을
- 3코스 흑석동 거문돌마을
- 4코스 대청호 수물마을



스토리

대흥동은 '크게 흥하다'라는 뜻이다. 2021년 12월 대전에서 처음으로 테미마을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사)대전문화유산올림의 테미박물관 주민큐레이터들이 직접 마을투어를 진행한다. 박물관 주변 골목길 걷기, 박물관 전시 관람, 보문산 보리밥 체험, 테미오래를 투어한다.

느낌 따뜻하다 / 고향같다 / 맛있다 / 추억하다

공간 대흥동, 대사동 일원

#테미마을박물관 #대사동느티나무 #테미오래 #대흥동 #관사촌 #보문산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코스별 소개

테미마을박물관

위치 대전 중구 대흥동 110-1

(사)대전문화유산올림에서 대전시의 후원을 받아 시민공유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테미마을박물관은 2021년 12월 15일 대전에서 처음 만들어진 주민주도형 마을박물관이다. 테미는 테미공원 일대의 지명이다. 산 정상부에 둥글게 테를 두른다고 하여 테미라고 했으며, 백제어로 테는 연결된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테미마을박물관의 핵심가치는 첫째 주민이 박물관 문을 열고, 닫는 것부터 운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박물관 전시를 주민큐레이터가 직접 기획한다. 셋째 박물관 프로그램을 마을과 연계하여 기획, 진행한다. 이 3가지가 바로 주민주도형 마을박물관의 모델이다.

소개 기획전시실

기획 전시는 “휴(休) 대전 마을 나무전”을 개관 특별전으로 전시 중이다. 기획 의도는 마을 주민들과 오랜 기간 함께한 것이 무엇일까? 박물관 근처에 대사동 느티나무가 있는데, 대전의 대표적 마을 나무를 소개하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전시를 기획했다고 한다.



< “휴(休) 대전 마을 나무전”을 전시 중인 테미마을박물관의 기획전시실 >

전시 구성은 나무의 구분, 대전의 가로수, 대전마을나무12선, 테미의 나무 이렇게 4가지 테마로 구성하였다. 나무의 구분은 오래되고 큰나무를 “노거수(老巨樹)”라고 하는데, 노거수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천연기념물, 기념물 등으로 구분하고, 산림보호법에서는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노거수 중에 쉽게 천연기념물을 금메달, 기념물은 은메달, 보호수를 동메달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대전에는 금메달1, 은메달1, 동메달 123 그루가 현재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소개 상설전시실

상설전시는 대흥동과 대사동 두 곳의 동을 현재 전시 중이다. 테미마을박물관의 활동 범위는 테미 지명을 직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대흥동, 대사동, 부사동, 선화동, 문화동 이렇게 5곳이며, 현재 주민큐레이터는 5개 동의 주민이거나 학교, 과거 거주 등의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 상설전시의 큰 틀은 동별 5곳의 대표적인 자원을 선정하여 안내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대흥동

대흥동은 큰대자 흥할흥자를 써서 크게 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흥동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행정과 교육,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다. 현재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조금 위축되어 있지만 원도심과 함께 다시 흥하게 될 곳으로 기대된다. 전시 내용은 연혁과 함께 문화예술의거리, 대흥동성당, 칼국수거리, 테미오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골목으로 구성하였다.

대사동

대사동은 큰대자 절사자를 써서 큰절이라는 뜻이며, 한글로 한절골이라고 불리었던 마을이다. 가장 대표적인 자원으로는 보문산이 있는데, 보물이 묻힌 산이라는 뜻과 함께 대전시민의 추억을 간직한 곳이라 추억이 보물처럼 묻힌 곳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대사동을 대표할 수 있는 5가지 마을자원을 선정했는데, 대사동느티나무, 테미고개, 충남대학교병원, 대사천, 보문산으로 구성하였고, 보문산은 다시 보문산성, 을유해방기념비, 케이블카, 그린랜드와 푸푸랜드, 아쿠아리움, 보리밭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18년지도와 1968년, 1983년 항공사진을 참고하여 박물관 주변의 지명과 옛 모습을 찾아보면 좋겠다.



대사동 느티나무

2

위치

대전 중구 대사동 104-8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키며 마을 주민의 쉼터이자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 나무이다. 현재도 정월대보름에 느티나무 제단에서 한절골 당산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 한절골 당산제 >

테미오래

3

위치

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 442

전화

042) 335-5701

홈페이지

<http://temiorae.com>

테미오래는 충청남도지사공관을 포함하여 공무원 관사로 사용되었던 건물 10동이 밀집되어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관사촌이다. 2018년 공모를 통해 테미오래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테미오래'와 '테미의 오랜 역사'를 의미한다. 1932년 지어져 2012년까지 관사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전시가 진행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4월 개관하였다. 자세한 내용과 전시, 공연, 행사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2코스 ✦ 마을여행 - 대화동 등대마을

스토리

대화동은 벼농사가 잘 되는 마을이다. 과거 유등천과 갑천이 만나는 곳이어서 농사짓기에 좋았다. 1960년대 이후 대전 1.2 산업단지가 이곳에 조성되었다. 지금은 많이 낙후되었지만 대전산업단지 재창조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등대공원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심속의 섬처럼 인근 다른 동과 동떨어진 느낌이지만 옛 정취가 살아있는 대화동 골목길은 아기자기한 스토리가 살아있어 정겹다. 이곳에서 옛추억을 떠올리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옛날 음식, 놀이, 벽화 미션, 연필 일기 등을 체험하고 대화동의 마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느낌 처음이다 / 허름하다 / 추억하다 / 재미있다

공간 대화동 일원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공단 #등대공원 #도시재생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코스별 소개

영심이 벽화골목 투어

위치 대전 대덕구 놀봄2길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대덕구 선정 지역이 된 대전 대화동은 골목사이에 여러 형태의 벽화와 조형물로 꾸며져 있다. 많은 작품들 중에 유독 우리와 친숙한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인 영심이를 주인공으로 그려진 벽화도 있다. 곧 골목 끝에서 튀어나와 같이 놀아줄 것 같은 영심이와 함께 대화동 골목을 거닐어 보자.

대화동 마을 탐방

위치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일대

재개발과 도시재생이라는 두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대화동에는 원주민과 최근에 전입해 들어온 주민들이 각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원주민들은 이 곳에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사신 분들로 대부분 노령이며 대화동을 고향처럼 여기고 있어 개발을 반대하는 편이다. 대화동에는 아직 이러한 어르신들이 많이 남아계신다.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자리잡은 곳을 스스로 가꾸고 이웃들과 공유하며 살고 있다.

주민 중 한 아주머님께서 담장을 트고 누구라도 언제나 편히 쉬고 가라고 마당 이곳저곳에 갖가지 화초와 나무로 작은 정원을 만들고 앉을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이곳에서 작은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나가는 어르신 아무나 붙잡고 짧지만 진솔한 대화동의 속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다.



원명학교와 정화원

3

위치

대전 대덕구 대화동 39-1

1963년 충남농아학교로 시작한 대전원명학교는 대화동에 있는 사립 특수학교이다.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를 두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은 물론 학교기업 직업훈련실과 행복일터를 마련하고 장갑 생산을 하는 직조실, 생활 소품 및 가구를 제작하는 DIY가구실과 카페 테리아 카페마루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다.

정화원 역시 1963년 충남농아원을 모태로 현재는 지적장애인 성인 거주시설로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



등대공원

4

위치

대전 대덕구 대화동 35-935

등대공원은 원래 대화어린이놀이터로 불리는 장소였다. 이곳 일대를 중심으로 2020 대화동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함께 재탄생한 공간이다.

이전에는 낡은 건물과 어두운 조명 등으로 우범지대였던 곳을 밝고 깨끗하게 동심 어린 장소로 만들었다.

한쪽 벽면 높이 솟은 등대는 어릴적 꿈과 희망을 비춰주는 듯하다. 한켠에 마련된 전망대에서는 대화동을 한눈에 내려 볼 수 있다.



공원에는 작은 조형물과 동시가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된다.

마을여행의 마지막에는 전망대를 무대로 삼고 통키타 가수와 함께하는 작은 공연도 해보면 어떨까?

2022
대전스토리투어



3코스 + 마을여행 - 흑석동 거문들마을

📅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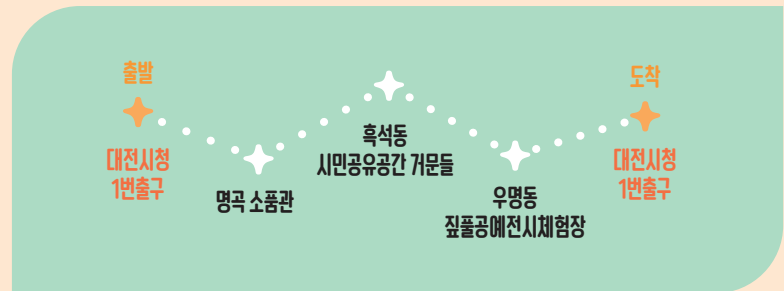
흑석동은 옥녀탄금형의 명당이 있다는 마을이다. 아름다운 여인이 거문고를 연주하는 형상으로 마을 앞의 들을 거문들이라 한자로 “금평(琴坪)이라 불렀다. 흑석동 등골마을에 있는 명곡소품관, 2021년 11월 문을 연 시민공유공간 ”거문들“, 우명동의 짚풀공예전시체험장에 들러 주민들이 들려주는 마을이야기와 짚풀공예를 체험한다.

🗨️ 느 낌 시골이다 / 정이있다 / 신난다

📍 공간 흑석동 일원

#흑석동 #장태산휴양림 #갑천 #노루벌 #시민공유공간 거문들 #금평 #우명동 #짚풀공예전시체험장

🕒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





< 흑석동 1960년대 풍경 - 시민공유공간 거문들 제공 >

코스별 소개



흑석동

흑석동은 법정동으로 갑천 상류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이며 장태산휴양림을 가기위해 꼭 거쳐가야 하는 10개의 법정동을 보유한 기성동에 속해 있는 마을이다. 옥녀탄금형의 명당이 있다는 마을로 아름다운 여인이 거문고를 연주하는 마을 앞 들을 거문들이라 하여 한자로 “금평(琴坪)”이라 불렀다. 금평이란 지명은 금평추여탕, 금평교, 금평이용원 등을 흑석동4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흑석동의 지명은 거문들이 후에 와전되어 검은돌이 되면서 검은 흑(黑)의 돌 석(石) 즉, 흑석동(黑石洞)이 된 것이다. 흑석동은 갑천 상류에 노루벌적십자생태원, 노루벌 노지캠핑장, 상보안유원지, 흑석유원지, 흑석리역, 흑석동산성 등으로 유명하지만 전형적인 서구의 시골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명곡 소품관

1

위치

대전 서구 흑석동 78-2

명곡 소품관이 있는 곳은 명악산(330m) 자락의 흑석동 등골마을이다. 현재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500여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뒤 사기점골에는 백자 가마터가 발견되었고, 은진송씨, 청송심씨, 광삼김씨가 주로 거주하고 있다. 글로벌 소품관 명곡(明谷)은 1951년 이 마을에서 태어난 김현중(金賢中) 선생이 2012년 5월에 개관하였다. 김현중 선생은 기성초등학교 26회 졸업생으로 1979년 외교관의 길로 들어서 1981년 뉴욕을 시작으로 부르키나파소, 타이완, 베이징, 홍콩, 히로시마, 도쿄 등에서 20여 년간 가족과 함께 주재하며 30년 넘는 외교관 생활을 하였다. 2011년 6월 정년 퇴임 후 고향에 돌아와 1937년에 지어진 명곡재에서 살고 계시며, 2022년 6월에는 ”뜻 위에 길을 만든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하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고 한다.



소품관은 아버지가 소를 키우던 외양간 자리에 30여개 국의 다양한 소품 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25개국 58점의 가면과 그림 30점, 공예품 400점, 생활 용구, 개인 기록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는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 등 해외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김현중 선생은 국내에 와 있는 외국 이주민, 유학생 및 도시와 농촌간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명곡 소품관에서 만들고 싶다고 하신다.



흑석동 시민공유공간 거문들

2

위치

대전 서구 흑석동 924

기성동에서 예비군동대 통폐합으로 공실이 된 예비군중대본부 건물을 대전시가 후원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11월 11일 시민공유공간 "거문들"이란 이름으로 개소하였다.

이 건물은 기성농협 맞은편에 위치해 공공시설로 사용되어 오다, 2020년 1월 정림동 예비군중대로 통폐합되면서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구청에서 마을공동체 형성·회복을 위한 거점 확보 및

주민자치 실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간에 대한 기성동 자생단체연합회의 무상사용 신청을 허가하고, 대전시 주관 시민공유공간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총 5,600만 원)를 지원받아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소하게 된 것이다.

사무실은 깨끗하게 꾸며져 있고 1960년대 기성동 모습을 담은 대형 칼라사진이 눈길을 끈다. 기성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주민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마을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명동 짚풀공예전시 체험장

3

위치

대전 서구 우명동 328-2

우명동 우명1경로당 2층에 짚풀공예전시체험장이 운영 중이다. 현재는 짚풀공예가 가능한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 활발하게 체험장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오래 이어진 짚풀공예를 알리고 체험하기 위해 대전스토리투어 "흑석동 거문들" 마을여행은 기성동청년회의 도움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우명동에 체험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대전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03년부터 짚풀공예품 솜씨보유자 10여명을 발굴하여 기술을 지도하고 짚풀공예품을 제작, 1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짚풀공예는 건전한 여가 시간 활용과 취미 생활로도 유용하다. 또한 손을 많이 사용하므로 노인들의 치매예방 효과도 있다고 한다.



2005년 농업진흥청이 주최한 짚풀공예품 공모전 농촌건강 장수마을 분야에서 김종성씨(서구 우명동)가 문양을 넣은 등구미와 틀메꾸리를 출품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2006년 10월 서구 우명동에 짚풀공예전시체험장을 마련, 도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짚풀공예품의 멋을 알리고 그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전통 한옥으로 꾸민 전시실에는 등태, 바작, 등구미, 삼태기, 짚가방, 짚장화 등 70여점의 공예품을 전시되어 있고, 15명 내외의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단체 체험의 경우 일시와 비용 등을 010-8802-7788로 문의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잊혀져 가는 짚풀공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의 전통 짚풀공예가 아이들에게 체험을 통해서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4코스 ✦ 마을여행 - 대청호 수물마을

📅 스토리

대청댐은 1980년 완공되었다. 대청호수가 만들어진지 42년이다. 물속에는 수물마을이 있다. 대청댐 전체에 86개 마을이 잠기고, 26,000여명의 수물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고향을 물 속에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수물민들의 애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수물민에게 직접 들어본다.

🗨️ **느낌** 그립다/가고 싶다/보고 싶다/만나고 싶다

📍 **공간** 주산동, 추동, 마산동 일원

#추동 #대청호오백리길 #대청호 #수물민 #명상정원 #항새바위

🕒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



코스별 소개

주산동 황새바위길

1

위치

대전 동구 주산동 173-1

주산동 전망대에서 약 700m 더 가면 연꽃마을로 가는 길이 우측에 보인다. 이 길로 접어들어 샘골농장까지 쪽 들어가도 좋고, 식당앞 주차가 어려우면 연꽃마을 입구 쪽에 적당히 주차하고 황새바위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여기가 바로 주산동의 대청호 황새바위 전망대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의 해맞이도 좋다. 그리고 대청호가 다도해처럼 보이는 멋진 곳이다. 황새바위가 있어 잘 알려진 곳인데 아무리 봐도 황새바위는 황새를 닮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황새바위 전망대는 대청호의 경관을 장쾌하게 볼 수 있는 곳인데 두가지는 꼭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하나는 수물민들의 이야기 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옛날 백제와 신라가 치열하게 싸웠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대덕군 동면 면소재지 모습 - 1974년>

수물민은 한마디로 고향을 물속에 두고 온 분들이다. 황새바위 전망대에서 동북쪽 1km 앞 물속에는 과거 대덕군 동면의 면소재지가 모두 수몰되었다.

면소재지에는 동명국민학교와 면사무소, 파출소, 농협, 신하우체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양조장, 쌀집, 한약방, 인화상회, 서울집 등이 있었다고 추중에 사는 김창수 어른신이 아련한 기억을 말씀해주셨다.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된 리(里)단위가 86개라고 한다. 리마다 여러 마을이 있으니 사실 작은 자연마을을 모두 합하면 수백개의 마을이 수몰된 것이다. 원해서 고향을 등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해 댐이 만들어지면서 대청호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고향이 물에 잠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이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울까? 나이를 먹으면 더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는데 1980년에 댐이 준공되었으니 이제 고향에 못간지 40년 세월이 훌쩍 넘었다. 누구는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다”고 하였다. 수몰민의 고향 마을에 얼마나 많은 추억과 스토리가 있을지 궁금하다.

전망대에 서면 떠오르는 또 하나는 삼국시대 국경을 맞대고 백제와 신라가 치열하게 싸운 이야기다. 동쪽으로 보면 백골산이 보인다.

이곳엔 백골산성이 있다. 옛날에 해골산으로 불렸다고 하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산 주변에 해골이 많았겠는가.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산 넘어 마을이 직동이다. 직동은 핏골이 중심 마을인데, 그 옛날 백제군과 신라군이 싸우다 피가 내를 이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마을이다. 전망대는 그냥 대청호의 풍광만을 즐기는 곳이 아니다. 대청호를 바라보고 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 대청호가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에 고마워하고, 잘 보존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마지막으로 황새바위 전망대를 찾는 길을 하나 더 소개한다면 추동 취수탑 근처 사진창고 앞 공영주차장에서 대청호오백리길 4구간 코스를 잘 찾아서 가면 된다.



추동 초콜릿정원

위치

대전동구대청호수로513-27

전화

042) 274-1003

황새바위까지 약 2.1km로 최근 유명해진 명상정원 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더 멋진 대청호의 고즈넉한 모습을 즐길 수 있다.



대청호 주변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은 카페의 남자 사장님이 이 마을 출신이라고 한다. 외지에 나가 있다 고향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카페를 낸 것이다. 실내나 야외 모두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대청호 주변에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카페라고 생각한다.

카페는 수제 초콜렛을 차와 같이 판매하고 있고, 스콘과 케익, 쿠키도 팔고 있다. 유치원 아이들의 초콜릿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며, 인원과 체험 내용을 협의하면 성인 대상 체험도 가능하다. 다양한 모양의 초콜릿도 먹어보고 체험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어 가족단위나 단체 손님까지 인기 많은 대청호 주변의 대표적 카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카페는 물론 주변 정원도 아주 잘 가꾸어져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야외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영업시간은 11:00-21:00이며, 월요일은 휴무이다.

2022 대저수지 투어

새벽여행

- 5코스 영원히대를 이어 살만한 갑천
- 6코스 독방을 거닐며 버드내 새벽산책
- 7코스 대청호에서 해맞이 해볼래?
- 8코스 아름다운 호수 대청호의 숨은 이야기
- 9코스 북쪽 끝마을 쇠여울에서 금강을 거닐다





5코스 ✦ 새벽여행 - 영원히 대를 이어 살만한 갑천

스토리

대둔산 물과 계룡산 물이 만나는 서구 봉곡동 아실마을 앞에서 마을 지명과 소나무 비보림 등 갑천의 자연환경, 평촌동 증촌마을느티나무에서 해맞이, 시골 카페에서 새벽에 차를 마시며 원주민에게 “영원히 대를 이어 살만한 갑천” 이야기를 듣는 새벽여행이다.

느낌 경이롭다 / 신선하다 / 운치있다 / 여유롭다 / 시골스럽다

공간 봉곡동, 용촌동, 평촌동 등 갑천상류 일원

#대둔산 #계룡산 #갑천 #새벽 #산책 #느티나무 #소나무 #카페 #수달 #비보림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코스별 소개

갑천(甲川)

대전은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크고 작은 하천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며, 전국에서 하천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의 하나이다. 대전에서 금강을 제외하면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갑천이 대전의 3대 하천 중 가장 큰 으뜸 하천이다. 주변에 산이 많고 하천이 많은 대전은 분명 축복 받은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기 좋은 대전을 옛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 했을까?

조선후기 18세기 중엽 택리지의 저자 이종환은 계촌을 끼고 있는 마을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마을이라고 이야기 하며 “고개와 떨어져 들에 있는 시냇가 마을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아 이루다 말하기 어렵다. 이 중에서 공주의 갑천(현재 대전의 갑천)을 제1로 치고 전주의 율담이 제2요, 청주의 작천이 제3이요, 선산의 감천이 제4요, 구례의 구만을 제5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갑천은 들이 지극히 넓고 사방의 산이 많고 수려하다. 세 줄기의 큰 내가 합쳐져서 토지는 모두 물대기에 용이한 점이

있으니 수확이 크다. 목화 재배에 적합하고 강경이 멀지 않다. 영원히 대를 이어 살만한 터전으로 정할 만 하다”라며 갑천 주변, 즉 대전을 사람들이 영원히 대를 이어 살만한 곳으로 칭송하고 있다.

갑천이 역사적으로 첫 등장하는 기록은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공주목(公州牧) 산천조(山川條)에 ‘省川在儒成縣 東七里 源出連山珍山二縣地界合流 經鎮本縣 至儒城縣東 爲省川’ <성천 재유성현 동칠리 원출연산진산이현지계합류 경진본현 지유성현동 위성천> ‘巴上 三川合流 爲懷德縣之甲川’<사상삼천합류 위회덕현지갑천>이란 기록에서 갑천은 대전천과 유등천이 지금의 둔산3동(옛 삼천동)에서 합류하여 회덕의 갑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갑천의 발원지는 대둔산 태고사 부근의 장군약수터이다. 이곳에서 발원한

갑천이 금강과 만날 때까지 논산시 벌곡면을 지나 대전시 우명동, 흑석동, 가수원동, 둔산동, 전민동, 봉산동을 거쳐 73.7km, 180여리 길을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긴 여정을 마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갑천의 지류는 두계천, 진잠천, 유성천, 탄동천, 유등천, 법동천, 관평천 등이다. 갑천 상류의 모습은 지금도 고향과 같은 느낌을 주는 작은 마을들이 배산임수의 입지를 찾아 곳곳에 등지를 틀고, 매우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며 물고기와 새들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과 어울려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최근에는 하천을 걸거나 자전거 라이딩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갑천 상류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갑천을 보호하고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 대전에서 사는 시민들이 동참해야 할 몫이란 생각이 든다.





봉곡동 아실마을

1

위치

대전 서구 봉곡동 519

봉곡동 아실마을은 계룡산에서 발원한 두계천이 대둔산에서 발원한 갑천과 합류해 국가하천인 갑천이 시작되는 곳이다. 갑천은 이곳에서 금강과 만나는 합류지점까지 약 33.5km를 더 흐른다.

마을앞 봉곡2교에서 주변을 살펴보면 계룡산 물이 대둔산 물과 만나는 두물머리에 용촌동 정방이 마을이 보인다.

정방이마을로도 불리는데 백제 멸망 무렵에 소정방이 이 마을에 왔다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마을이다. 진짜 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백제부흥운동시기에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진현성(眞峴城)'이 근처 고무래봉에 있는 흑석동산성으로 비정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나라 군대와 관련이 있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듯 하다.

아실마을은 뒤에는 산이 앞에는 갑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태의 마을이다. 마을 앞 독방에는 1950년에 심은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고 마을 왼편으로는 논둑에 10여 그루의 소나무가 군락이 있다. 이 소나무 군락은 과거에는 마을에 홍수 피해가 잦았고, 풍수적으로도 좌청룡에 해당하는 공간의 '허(虛)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을 비보림(裨補林)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돌을 하나 세워두었는데 큰 효험이 없자 200여년 전 소나무 비보림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소나무 비보림이 있는 곳의 지명이다. 마을 분들은 이곳을 '독선거리'라고 부른다. 왜 독선거리일까? 그 이유를 생각하며 소나무 비보림을 찾아가 보자.





평촌동 증촌 느티나무

위치

대전 서구 평촌동 1007

2

서구 평촌동은 갑천 상류에 위치한 농촌 마을이다. 예로부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연동진남 가활만인(連東鎭南 可活萬人)이라 하여, 연산 동쪽 진잠 남쪽에 만인이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예언이 전해진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 평촌동 일대가 바로 그 가활만인의 땅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도 갑천 상류 주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증촌마을 뒷산은 월성산이라 하는데 좌우로 용산과 잣밭날의 끝자락이 마을을 초생달 모양으로 성처럼 에워싸고 있다고 하여 월성산(月城山)이란 이름이 붙여진 듯하다. 산 아래 증촌마을이 있으며, 증촌마을 동쪽으로 갑천이 휘감아 돌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이 마을은 무송유씨들의 집성촌이었다. 40여 호 정도 살고 있는데 현재도 약 70%가 무송유씨들이라고 한다.

26번 버스종점 옆에는 증촌마을 유래비가 세워져 있다. 2008년에 세운 것인데 유래비의 내용을 보면 고려 개국공신인 무송유씨의 시조 총절공 유금필 장군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에 22세손 통덕량 웅(雄) 할아버지께서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무도 나이가 있다. 그러나 나무 나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결국 마을 주민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에게 이 나무 나이가 얼마나 됐냐고 물으면 대부분 수 백 년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200년, 어떤 이는 400년. 그럼 조사자는 대충 300년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나무의 나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호수 안내판에는 민속 나이가 기록으로 남는다.

증촌마을의 느티나무도 보호수 뜻에는 400년이라고 새겨져 있다. 아마도 무송유씨가 이 마을에 살기 시작한 기점부터 나무의 나이를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르신들께 나무의 나이를 여쭙보면 400년은 잘못된 나이라고 한다. 100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는 말이 맞을 듯싶다.

2016년 6월에 이 마을을 찾아 오랜만에 유동식 할아버지로부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유동식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보였던 마을 어르신인데 증촌 마을의 산 증인이시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란 말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이 아프리카의 속담이든 아니든 노인한 분이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야기가 그만큼 방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유동식 할아버지는 증촌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1913년생이니 우리나라로 110세이다. 100세 이상을 건강
 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기도
 하지만 나무와 거의 같은 나이라니 더 믿겨 지지 않는다.
 늘 유쾌하시고 건강하시다. 소리 또한 주변에서 최고로
 잘한다는 전설이 있는 할아버지시다.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무의 이력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아주 어릴 적에 마을 어른들이 목도로



강 건너 오동 장밭탱이라는 마을에서 꽤나 굵은 느티나무
 를 옮겨 심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었다. 할아버지는 이내
 “나무 앞에 써 있는 것은 아니며, 내가 어릴 적 봤다. 한
 100년 조금 넘지. 그때 30년 정도 된 나무라면 130살
 정도 어.” 하시며 웃는다. 느티나무와 유동식 할아버지가
 한 몸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나무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증촌 마을의 느티나무는 그 수형이 대전의 노거수 중 가장
 으뜸이다. 그만큼 건강하게 잘 자랐고 나무의 모양 또한
 아주 멋지게 성장한 것이다. 멀리서도 돋보일 정도로
 나무는 매우 아름답다. 느티나무를 혹자는 “멀리서 보아도
 늘 티를 낸다.”고 느티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느티나무의
 유래 중 가장 와 닿는 말이기도 하다.

대전에서 가장 티를 내는 나무를 보려면 서구 평촌동의
 증촌마을을 찾아오면 된다. 8월의 무더위가 지나고 9월
 추석 무렵 들판은 황금빛으로 변한다. 그때 이 나무를
 찾으면 가을 정취와 어울려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영화 클래식 촬영지

3

위치

대전 서구 원정동 245-22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그러나... 반드시



지금은 폐역이 된 호남선 원정역 뒤쪽의 두계천에 박재용 감독의 영화 '클래식' 촬영지가 있다. 영화의 처음과 끝을 장식한 장소가 원정동에 위치한 두계천이고, 두 주인공이 두계천의 나무다리를 오르는

장면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영화 '클래식'은 손예진, 조인성, 조승우 주연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녹아있는 작품으로 지고지순(至高至純)한 사랑 이야기가 전편에 흐르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2003년 제2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음악상을 수상하였을 정도로 영화 안에서 음악이 주는 감동이 크다.

영화 클래식은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장소가 많이 나온다. Johann Pachelbel 의 Canon이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아침 안개 자욱한 강 모습과 흔들리는 버드나무 그리고 나무다리가 그림처럼 펼쳐지며 시작된다. 그 아름다운 강 모습이 대전의 두계천이다. 영화에서 두계천의 역할은 꽤나 크다. 영화 속 어머니 주희의 첫사랑과 딸 지혜의 첫사랑이 모두 이곳 두계천에서 연결되기 때문이다.

두계천은 원정동 '세편이마을' 과 '정방이마을' 사이로 흐르는 하천이다. 대전 서구청에서 갑천을 따라 농촌과 도심이 있는 생태, 탐방길 '갑천누리길'을 조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별코스로 지정된 두계천 길은 두계천을 따라

이어진 미리미마을, 무도리마을, 세편이마을, 정방이마을, 야실마을들을 연결해 놓은 길이다.

세편이마을 앞의 두계천은 영화 클래식의 주요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처음과 마지막 장면은 물론이고 주희(손예진)와 준하(조승우)의 운명적인 첫사랑이 시작되는 곳도 두계천이다. 수박 한 덩어리와 양갈래 머리를 땀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주희(손예진)가 소달구지를 타고 지나가는 곳이 세편이마을 앞 두계천 독이고, 준하(조승우)가 2명의 친구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곳도 두계천이다.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은 뭉니뭉니 해도 '강가에서'라는 음악이 흐르며 하늘에선 별들이 반짝이고 풀 숲에선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소낙비에 젖은 준하(조승우)가 주희(손예진)을 업고 두계천의 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이다.



클래식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OST

너에게 난 나에게 넌 / 노래 :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강가에서 / 클래식 OST



너에게 난 나에게 넌



6코스 ✦ 새벽여행 -

독방을 거닐며 버드내 새벽 산책



스토리

유등천 상류의 독방을 걸으며 새벽 산책을 즐긴다. 구만리 계곡과 대전 시계로 이어지는 흙길 독방에서 새벽에 들리는 새소리, 벌레 소리 등 온갖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수달과 대전시 깃대종 이야기, 늦점골과 방아미 마을 이야기를 듣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생애를 알아보는 “독방을 거닐며 버드내 새벽 산책”을 즐기는 새벽여행이다.



느낌

신선하다 / 견고하다 / 한적하다 / 고즈넉하다 / 숭고하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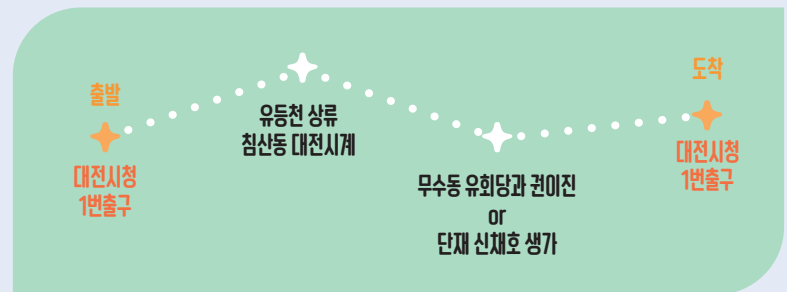
침산동 유등천상류 일원, 무수동, 어남동

#유등천 #뿌리공원 #유희당 #권이진 #신채호 #독립운동가 #역사학자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코스별 소개



유등천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월봉산 부근 열두봉재에서 발원하여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의 갑천과 만나는 하천이다. 침산동의 시계에서 갑천합류점까지 15.5km의 대전 구간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유로 연장은 44.4km이다.

유등천의 유래는 버드나무가 많아 '버드내'라는 예쁜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일설에는 태평동의 '벌말'과 가장동의 '들말'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 '벌들내'가 '버드내'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과거에 유포천(柳浦川), 유천(柳川), 버드내, 애천(艾川), 쑥내, 창계(滄溪) 등으로도 불리었다.

유등천은 대전의 3대 하천 중 하나로 대전을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르는데, 상류 쪽에서는 중구와 서구를, 하류 쪽에서는 서구와 대덕구를 경계하는 하천이기도 하다.

유등천 상류 지역의 복수교에서 안영교사이 약 1.2km구간은 생태하천조성 구간으로 지정되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예전의 안영유원지 일대는 뿌리공원과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유등천 침산동 대전시계

1

위치

대전 중구 침산동 397



침산동의 대전시계는 유등천을 가로지르는 구간이다. 오월드를 지나 언고개를 넘으면 중구 침산동인데, 침산동의 방아미마을에서 늦점골의 유등천 대전시계까지 걷는 것보다, 중구 안영동 셋고개 굴길을 지나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구만리 계곡에서 징검다리도 건너고 독방길을 따라 걷는 것이 훨씬 유등천 상류의 자연을 느끼기에 좋은 코스이다. 이 길을 새벽에 걸으면 새소리, 벌레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2~3배는 크게 들리는 듯하다. 또한 바람과 신선한 공기 다양한 냄새 등 자연을 통해 오감이 열리는 느낌을 받곤 한다.

이 구간에는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과 대전시 깃대종 감돌고기를 볼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4년 2월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하늘다람쥐(산)와 이끼 도롱뇽(계곡), 감돌고기(하천) 등 3종을 최종 선정 발표 하였다.

바로 이 중 하나인 감돌고기가 유등천 침산동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고 반가운 일이다. 감돌고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감돌고기는 껍지와 같은 다른 물고기의 알에 자신의 알을 부화시키는 탁란의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유등천, 금강, 만경강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등천 대전시계는 우기에는 바지를 걷고 건너야 할 정도로 물이 불어날 때가 있다. 이럴 땐 가차 없이 바지를 걷고 건너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시계를 지나 침산동 낚터골에 다다르면 자연스럽게 남자들은 적당한 크기의 자갈돌을 찾아 물수제비뜨기를 한다.

남자들이 시범을 보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물수제비뜨기 경쟁이 붙기도 한다. 이러한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낚터골을 지나 방이미마을로 들어서면 이내 수련교 밑의 수형이 아름다운 멋진 느티나무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유등천 걷기의 백미이다.



단재 신채호 생가

2

위치

대전 중구 어남동 233

문화재

대전시 기념물 제26호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가 있는 중구 어남동의 도리미 마을은 선생이 신광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여덟살 때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신채호 선생은 열아홉 살 때 성균관에 입학하여 스물여섯 살에 성균관 박사가 되었고, 을사늑약(1905) 후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민중 계몽 운동과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항일 비밀단체인 신민회 사건에 연루되어 1910년에 망명길에 올라 독립 활동을 전개하였다. 선생은 1928년에 대만 기륭 우체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뤼순감옥(旅順監獄)에 수감 되었다 57세 되던 해인 1936년 2월 21일에 뇌일혈로 옥사하였다.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선생은 역사학자, 언론인, 문장가이자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 혁명가로 항일선언문의 백미이자 독립운동사 불후의 명작으로도 일컬어지는 '의열단 선언(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지는 1991년 7월 대전시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다. 생가지가 대전시 문화재가 될 때까지 사실 대전시민들은 단재 선생이 대전 출신의 인물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청주 상당구 낭성면 고두미마을에 선생의 사당과 묘, 단재 기념관이 있어 청주 출신의 인물로만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재 선생과 같이 수학했던 조부로부터 어린 시절 단재가 탄옹집 13권을 한번 보고 줄줄 외웠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다'는 권선우씨(대전일보 1987년 2월 21일자 기사)와 대전의 향토사모임인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에서 1988년 마늘밭이었던 생가를 다시 고증하고 이후 생가터에 표지석을 세운 것이 계기가 되어 대전 출신의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생가지 복원에는 안동권씨 사포공파 증중 땅이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이호 여사의 아들 사포공 6세손 권용민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전시가 추진한 단재 선생 성역화 사업(1992~1999)에 종종으로부터 부지를 기증받아 친척들의 고증을 거쳐 현재의 생가를 복원하게 되었다. 생가는 ‘ㄱ’자 초가집과 창고, 장독대, 돌담이 둘러져 있으며,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초가집은 안방과 건넌방을 내당 공간으로 하고 동쪽으로 툇마루를 내고, 왼쪽에 들인 앞면 2칸 옆면 2칸의 날개집은 따로 남쪽으로 툇마루를 내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1996년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동상을 생가 앞에 건립하였다.

단재 선생에 대한 관심은 생가가 복원되고 동상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전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2007년 옛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임과 대전문화관광 해설사회가 첫 탄신 기념 헌화식을 개최한 이후 2009년부터는 중구문화원 주관으로 많은 시민들과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참여하면서 탄신 기념 헌화식을 확대 하였으며, 2015년 단재홍보관을 개관하고 2019년 드디어 단재 신채호 선생 탄신 기념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단재 선생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와 증손자가 참석하

여 탄신 기념식과 서대전시민공원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동상 제막식'도 함께 진행 되었다.

단재 신채호 동상

3

위치

대전 중구 문화동1-29
(서대전시민공원내)

대전시는 3·1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 하여, 2019년 12월 8일 단재 신채호 선생의 탄신 139주년 기념일에 맞춰 선생의 동상을 서대전공원에 건립했다.

서대전공원에 건립된 단재 선생의 동상은 좌대 2m를 포함해 4.95m의 높이로 제작됐다. 좌대에는 단재 선생이 언론에 게재한 논설 중 역사로 민족을 일깨우고자 했던 의지가 담긴 글귀를 선정해 '역사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새겼다.

동상의 형태는 올곧게 독립운동만을 위해 살아온 모습과 한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선생의 모습을 입상으로 제작했다. 동상의 오른손에는 신채호 선생이 1910년 망명길에 오를 당시 유일하게 가져갔던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 선생의 역사서 <동사강목(東史綱目)>이 들려 있고, 왼손을 뒷짐을 지고 있는 형태다. "뒷짐을 진 모습은 일제에 당당히 마주하면서 여유를 잃지 않았던 당찬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표현했다"고 동상 제작을 맡은 김복규 조각가는 말한다. 동상의 얼굴은 표준영정과 교과서 사진을 기준으로 제작했고, 의복은 일제강점기 3·1운동 때 실제 입었던 두루마기를 고증하여 제작했다.





7코스 ✦ 새벽여행 - 비대면 대청호에서 해맞이 해볼래?

스토리

대청호오백리길 삼정생태공원, 로하스캠핑장 주변과 지명, 산 끝자락의 대청정 등에서 대청호를 배경으로 떠 오르는 환상적인 동네일출을 감상한다. 해피로드길을 걸으며 우리가 잘 몰랐던 대청호의 생태와 마을의 유래를 들으며 “대청호에서 해맞이 해볼래?”라고 질문하는 해맞이와 어우러진 새벽여행이다.

느낌 신선하다 / 멋지다 / 희망차다 / 장관이다 / 시원하다

공간 삼정동, 미호동 대청호 일원

#대청호 #해맞이 #캠핑장 #해피로드 #금강 #대청댐 #미호동 #정려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코스별 소개

대청댐

대청댐은 금강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1975년 3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5개년에 걸쳐 4대강 유역 수자원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사이의 좁은 협곡에 높이 72m, 길이 495m의 콘크리트댐과 록필댐(사력댐)의 복합형 댐으로 건설됨으로써 거대한 인공호수가 만들어졌다.

대전시와 청주시, 또한 당시 대덕군과 청원군 사이에 있다고 하여 대전과 대덕군의 '대(大), 청주와 청원군의 '청(淸)자를 따서 대청(大淸)댐이라 명명하였다.

대청댐은 한국에서 소양강댐, 충주댐에 이어 3번째 규모의 댐이다. 유역 면적은 4134km에 총저수량은 높이 76.5m에서 80m까지 홍수조절 용량을 합쳐 14억 9000만m에 이른다. 이 저수량으로 금강 유역의 만성적인 홍수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청주·군산·전주 등 유역 내의 인접 도시에 연간 13억m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또한 금강 하류 연안·미호천 연안 및 만경강 유역의 농경지에 연간 3억 5,000만m의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최대출력 600kW의 전력과 연간 2억 600만kWh의 발전량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그리 높지 않은 산과 골짜기, 대청호 주변 마을이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어 대전과 충청지역 관광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대청댐 광장 맞은편 구봉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현암사를 비롯하여 청남대와 문의 문화재단지, 대청댐 물문화관, 전망대, 취백정, 대청호자연생태관, 슬픈연가길,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 등의 자연생태 및 문화관광자원이 있다.



여수로댐



대덕구 미호동에 홍수 방어능력과 댐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관광, 휴식, 레저명소로 2014년 6월 13일 준공되었다. 1981억원의 예산으로 높이 56m, 댐 길이 280m, 여수로 길이 1,145m 규모로 전국 24개 댐 가운데 14번째라고 한다. 주변에 로하스 가족

캠핑장, 풋살장, 생태공원, 전망대 등 수변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대청호오백리길

대청호오백리길(Daecheongho Obaekri-Gil)은 총 21구간으로 대전(동구, 대덕구)과 충북(청원, 옥천, 보은)에 걸쳐 있는 약 200km의 도보길이며 대청호 주변 자연마을과 소하천, 등산길, 임도, 옛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청호오백리길은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배후 생태관광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외지 관광객은 물론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입소문이 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내 '언택트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면서 가족단위로 대청호오백리길을 이용하는 나들이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청호오백리길 홈페이지 <http://www.dc500.org/>



삼정동 이촌, 강촌마을

위치

대전 대덕구 삼정동 513-4(이촌)

1

이촌마을은 350여 년 전부터 경주이씨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촌(李村)이라 부른다. 또는 강촌에서 고개 너머 마을이라 하여 넘말이라고도 하며, 삼정골 아래에 있어 아랫말 혹은 삼정하리라 한다. 2012년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삼정생태공원(이촌)이 완공되었고, 주변에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이촌을 출발해 수변에 있는 정자까지 걸어가는 산책로가 호젓하며, 호숫가에 물안개라도 끼는 새벽이면 분위기는 환상적이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박효함의 묘 앞 대청호 수변에 조성한 정자에서 호수가 붉게 물드는 낭만적인 해맞이를 즐길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7월 21일 대전시가 선정 발표한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도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잠시 수몰민들을 생각해보자. 물속에 고향을 두고 온 수몰민의 애환은 직접 겪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없다. 대청댐이 생기면서 86곳의 자연마을이 물속에 잠기고 약 26,000여 명의 수몰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빗대서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86곳의 마을이 사라졌으니 86개의 박물관이 사라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물민의 이야기와 수물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청호오백리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수물민과 수물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수물되지 않고 옛 기억과 추억들이 전해지길 바래본다.



차윤주·차윤도 정려각

2

위치

대전 대덕구 미호동 241-1

삼정생태공원에서 비상여수로담을 지나 대청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왼쪽 금강 변에 멋진 소나무와 작은 기와집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조선 정조 때 회덕 미호리에서 태어난 차윤주·차윤도 형제가 소년 시절부터 효행이 남달라 효동(孝洞)이라고 소문이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동생 차윤도는 17세 때에 모친이 병으로 늙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인육개탕을 정성껏 달여드려 완쾌시켰으며, 형 차윤주는 20리 길의 아버지의 묘소를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묘 호곡하니 그 효행이 널리 알려지자 고종 17년 조정에서는 우부승지를 보내 이 사실을 확인

하고 감탄하여 후일에 교지를 내리고 재목과 목수를 보내어 효자 정문(孝子旌門)을 건립하도록 하였다. 1891년 (고종28)에 세워진 이 효자 정려는 대덕구 미호동 취백정(翠白亭) 맞은 편 금강 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후 정려 편액은 소실되고 다만 정려의 내용을 담은 두 개의 비를 세워 비각 내부에 보존하고 있다.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평면을 구획한 후 기단 위에 낮은 원형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간결한 납도리집 계통으로 꾸몄고 창방 위에는 3개의 소로를 놓아 주심도리를 받고 있으며 지붕은 흘처마 맞배지붕이다. 사면에는 비를 보호하기 위해 홍살을 돌렸다. 이곳에서 조선시대의 효가 현재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금강해피로드

3

위치

대전 대덕구 미호동 711

대청댐 잔디광장 부근 대청교에서 금강 좌안으로 테크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대청호오백리길 21구간으로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라고 한다. 금강 본류를 따라 신탄진 방향으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아주 운치 있는 길이다. 차를 타고 신탄진에서 대청댐까지 드라이브만 한 사람들이 이 멋진 길을 모르거나 아니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길을 한번 걸어보면 또 오고 싶고, 다른 사람과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멋진 산

책길이다. 금강을 비단강이라 한다. 비단 강물을 오른쪽에 두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새벽에 해피로드를 걸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든다. 길 중간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2013년 사진찍기 좋은 명소가 나오는데 왕버드나무 군락이 금강물에 잠겨 햇빛과 안개가 낄 때 수많은 사진가가 이곳을 찾아온다고 한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러 셀카도 찍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시간을 즐겨보자. 어떤 분은 왜 이런 곳을 지금 알게 되었는지 왜 모르고 살았는지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한마디 거든다면 대전에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대전의 갈 곳을 찾아보지 않는다고, 다른 지역에 갈 때는 숙박, 맛집, 명소 등을 검색하고 미리 찾아보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사는 대전은 그냥 맛집만 검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전시민들도 달라지고 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대전 곳곳을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찾아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대전시민들에게 대전을 여행할 때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 대전을 함께 여행하자고...



8코스 ✦ 새벽여행 - 아름다운 호수 대청호의 숨은 이야기



스토리

대청호는 1980년에 만들어진 인공호수이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주변의 경관도 많이 변하였다. 대전의 미소 비룡동 줄곧 돌장승과 주산동 전망대와 명상정원에서 즐기는 동네 일출 감상. 대전 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이야기와 호수에 잠겨 고향을 갈 수 없는 수물민의 애환과 “아름다운 호수 대청호의 숨은 이야기”가 있는 새벽여행이다.



느낌

신선하다 / 슬프다 / 희망차다 / 고요하다 / 시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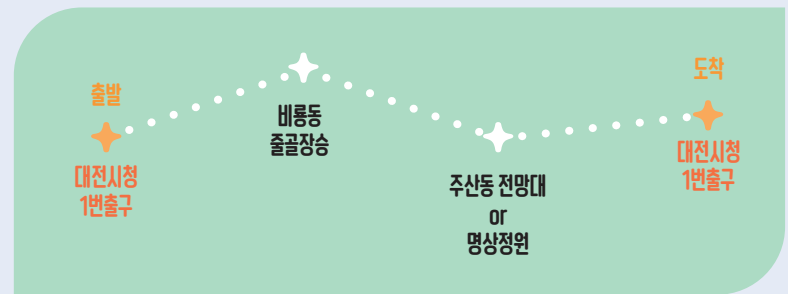


공간

비룡동, 주산동, 추동 대청호 일원

#돌장승 #명상정원 #수물 #내탑수영장 #대덕군 #대청댐 #슬픈연가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코스별 소개

비룡동 줄곧장승

1

위치

대전 동구 비룡동 91-3

판암동을 지나 세천고개 직전 비룡동 삼거리에서 왼쪽 추동방향 대청호길로 약 1km 정도를 가다 고개 근처에서 양쪽에 마주 보고 서 있는 돌장승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비룡동(줄곧) 장승인데, 명문을 보니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이다.

대전에는 산성이 많아 '산성의 도시 대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돌장승의 도시라고 할 만큼 돌장승도 많다. 마을 입구에 나무나 돌을 조각해 세우는 장승은 예로부터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해 왔다. 장승 주변을 살피면 바닥에 황토가 뿌려져 있고, 금줄도 찢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가방 처럼 매고 있는 오쟁이의 모습이 정겹기도 하다. 역시 늘 미소 짓는 할아버지 장승도 항상 미모를 뽐내는 할머니 장승도 길손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

보통 다른 마을의 장승제는 저녁 6시나 7시에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비룡동 줄곧 마을은 늘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장승제를 지낸다. 그것도 마을을 다섯 번이나 풍물을 치고 돌면서 말이다. 정말 정성이 대단하다.

늘 사람들에게 이곳을 지날 때면 대전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소가 아름다운 여장승이 있는 마을이라고 자랑한다. 심지어 '미스 돌장승 진'이 바로 줄곧마을 지하 대장군이라고 허풍도 치면서 말이다.



사실 허풍이 아니다. 진짜 장승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말 예쁘다고 공감한다.

덧붙여, 대전시립박물관 3층 상설전시실 입구에 복제품이 있고, 서울국립민속박물관 야외 전시공간에도 복제품을 돌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돌장승이라고 해설한다. 가끔 장승에 소원을 빌어보라고 말하면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마을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 돌장승이 또 어디 있겠는가?



주산동 해맞이 전망대

2

위치

대전 동구 주산동 산14-6

비룡동을 지나 추동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고개 하나를 넘는다. 고개를 넘어 마을로 내려오면 금성마을 입구이고, 바로 이어진 고용골 마을을 지나 다음으로 상촌이란 마을이 바로 다가온다. 마을 입구를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작은 침터가 보인다. 전망 데크에서 주변을 살피면 대청호 수변과 호수가 바로 앞에 멋지게 펼쳐져 있다. 남쪽으로는 신선바위가 있는 신선봉도 보이고, 서쪽으로는 상촌 뒷산인 고봉산도 보인다. 동쪽에 보이는 산은 백골산성이다. 여기서 5-6월에 대청호 해맞이를 하는 것이 가장 멋지게 대청호와 어우러진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대전 최고의 해맞이 포인트다. 고개를 넘어와 금성마을 입구에서 습지 산책로를 따라 약 10여 분을 걷고 전망대에 도착해서 해맞이를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 새벽에 습지의 산책로를 걷는 맛이 대청호의 진수를 느끼기에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4월에는 아직 전망대 앞에 보이는 산 위로 해가 뜬다.

그래서 햇빛이 호수를 붉게 물들이는 장관을 볼 수가 없다. 이왕이면 5-6월 좋은 시기에 맞춰 해맞이를 하면 더 좋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온갖 새소리가 합창 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해맞이 직전의 멋진 전주곡과 같다. 이곳 전망대에서 대전 일출 시간이 5시 20분이라면 해맞이는 대략 20분 지나서 해를 볼 수 있다. 즉, 5시 40분이 넘어서야 해가 뜬다고 보면 된다. 만약 물안개라도 핀다면 더 환상적인 해맞이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대전의 사진작가들이 대청호 해돋이를 찍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한다.





9코스 ✦ 새벽여행 - 북쪽 끝마을 쇠여울에서 금강을 거닐다



스토리

대전은 3대 하천과 금강이 흐르는 하천의 도시이다. 대전 북쪽 끝마을은 유성구 금탄동의 쇠여울이다. 시민들이 대전 북쪽 끝마을의 이야기와 쇠여울과 연계되는 금강 독길을 거닐며 쇠여울 일대의 마을과 금강의 생태 스토리와 어우러진 “북쪽 끝마을 쇠여울에서 금강을 거닐다” 이야기가 있는 새벽여행이다.



느낌

경이롭다 / 신선하다 / 장관이다 / 시골스럽다



공간

금탄동, 금동, 봉산동 일원

#금강 #새벽 #봉산동 느티나무 #한글편지 #쇠여울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코스별 소개

금탄동 쇠여울 마을

1

위치

대전 유성구 금탄동 산40-3



유성구 금탄동은 동네 뒷산 일대에 옛날부터 금이 많이 났다고 하며, 이러한 금채굴은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되었고 지금도 그 금채굴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금점산이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금점산 밑 금강가에서는 사금을 채취하기도 하였다. 금탄(金灘)이란 지명에서 “금”은 쇠금(金)으로, “탄”은 여울탄(灘)으로 표기하였고, “금탄”이라고 부를 때는 “쇠여울”이라고 불렀다. 이 쇠여울이 줄어들어 “쇠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570여 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조선 세조 원년 단종 복위 사건이 실패로 끝난 직후 사육신 중 성삼문(成三問)의 일가 친척들이 멸족을 두려워하여 이 산골로 은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의 농토가 좁고 기름지지 못하여 타지역보다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살았던 마을이라 전해진다.

이곳에는 아직도 서낭당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서낭당 한곳에 작은 촛불을 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춧불이 켜진 모습을 밤과 새벽 시간에는 볼 수 있다. 아마도 대전에서 서낭당이 보존되어 있고, 춧불을 켜는 곳은 이곳 뿐이 아닐까 싶다.

이곳을 찾아가려면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가면 가장 쉽다. 송강동에서 금고동을 지나 유성구 대동으로 들어와서 버스가 갈만한 길을 따라 끝까지 가야 만날 수 있다. 어쩌면 대전에서도 북쪽 끝마을 답게 아직은 오지라고 할 수 있다.

금강독방길

2

위치

대전 유성구 대동 127



금탄동 쇠여울에서 마을과 서낭당을 보고 뒤돌아 나오면서 첫 번째 왼쪽 산길을 따라 가면 금강 독방길로 연결하여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정말 한적한 길이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걷기에 아주 좋다. 특히 가을로 접어들어 금강에 피어나는 안개와 어울리면 정말 환상적인 독방길을 산책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11월 이후에는 해맞이도 멋지게 할 수 있다. 해가 좀 더 낮은 산위에서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넓은 독방길과 안개, 일출, 겨울 철새들의 날개짓까지 어울리면 이곳이 대전인가 하며, 대전에 살고 있다는 것에 행복감을 듬뿍 느낄 수 있다.



봉산동 느티나무

3

위치

대전 유성구 봉산동 297

문화재

대전시 기념물 제48호

봉산동 느티나무는 2017년 봄에 대전에서는 두 번째로 문화재 나무가 되었다. 보통 오래된 나무를 노거수라고 부른다. 생명문화재이자 살아있는 조상이라고도 불리운다.

봉산동 느티나무는 수형이 아름답고 특히 마을 사람들이 이 동구나무 보존회를 만들어 매년 정월 열나흘날에 액막이 놀이와 함께 목신제를 지냈던 나무이다. 지금도 목신제 행사는 이 마을의 자랑이자 가장 오래된 마을 행사이기도 하다.

마을의 자랑이라는 말이 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나무는 봉산동 바구니 마을에서는 신격화된 신목이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주민들의 삶을 의지했던 특별한 존재인 나무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내려오는 전설로 과거 인근의 신탄진읍과 유성읍

사람들도 올해 봄에 잎이 어떻게 피었는지 궁금해했던, 그래서 더 마을의 자랑으로 여겼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는 상황에서도 이 나무는 공원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며, 더욱 마을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마을여행 봉산동 느티나무 방문 - 2014. 8.20.>

봉산동 느티나무 안내판 내용

살아있는 문화재 ‘봉산동 느티나무’

대전 봉산동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480년 전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이 장대하며, 미적 수려함을 갖추고 있다. 매년 음력 정우러 열나흘날에 봉산동 토박이 주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목신제를 지내고 있다.

주민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며 민속 유산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뛰어나 시 기념물 제48호로 지정(2017.3.13.)하여 보호하고 있다.



<옛 봉산동 느티나무 모습 - 1970년대 후반>

2022
대저스토토리
+ 투어

야간투어

- 10코스 하늘과 별이 가까운 대동하늘공원
- 11코스 환상의 빛 갑천반딧불이
- 12코스 갑천 엑스포 야경투어





10 코스 ✦ 야간투어 - 비대면

하늘과 별이 가까운 대동하늘공원



스토리

한밭 즉, 대전(大田)의 동쪽 마을 대동,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골목 벽화를 만날 수 있다. “하늘과 별이 가까운 대동하늘공원”에서 원도심을 조망하며, 대전 최고의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야간투어이다.



느낌

그림다 / 환상적이다 / 신비롭다 / 도시적이다



공간

대동 일원

#대전역 #경부선 #한국전쟁 #벽화마을 #대동하늘공원 #해넘이 #노을



코스 3시간 20분 / 도보



코스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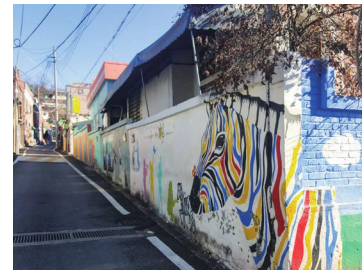
대동 벽화마을

2007년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미술추진위에서 실시한 ‘소외지역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미술인 30여 명과 동네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벽화 그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2018년도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동하늘공원은 도심에서 해넘이와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대전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점을 살려 최근 대전시민은 물론 타지역의 청년들도 많이 찾아오는 명실

상부한 대전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 동구 8경에, 2019년에는 국내 대표 야간관광지 선정 등 더 이상 도심 속의 적막한 소외지역이 아닌 살기 좋은 마을로, 또한 멋진 해넘이와 도시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대전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위치

대전 동구 대동1-916

대동 하늘공원

2

위치

대전 동구 대동 산1번지

대동 벽화마을 동쪽에는 배골산 언덕이 마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동구 용운동과 접경을 이루는 이 언덕은 해발고도 120m~127m, 길이 500m 가량의 능선이 풍차가 있는 곳부터 연애바위까지 길게 발달 되어 있다. 대동 산1번지 주변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일부 피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면서 대전의 대표적인 달동네를 이룬 곳이다. 지은 지 40~50년 되는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성냥갑처럼 붙어있는 마을이다. 달동네의 골목길을 걸으면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다. 반듯하고 차가운 도시의 풍경보다는 정감 어리게 다가오는 골목길. 누런 코에 때 묻은 손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왁자한 골목 풍경이 눈에 선하다. 추운 겨울이면 낱장 연탄 새끼줄에 꿰어 종종걸음치는 아낙의 모습도 겹쳐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그 시절은 못 입고 못 먹었지만 이웃과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던 정 많은 시절이었다.





추운 겨울 연탄 한 장의 온기로 단칸방 한 가족이 숨이불
뿜어가며 추위를 녹이던 그 시절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넘치는 시절이었다. 이웃의 가정사는 물론이고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낱알이 꿰고 있던 그 시절은 '이웃사촌'
이 유행어처럼 번져나던 시절이기도 하다.

60~70년대 어려웠던 시대상을 대변하듯 그때의 풍경이
남아 있는 대동의 달동네는 목은 때를 벗어버리고 탈바꿈
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2007년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미술추진위에서 실시한
'소외지역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미술인
30여 명과 동네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벽화를 그리고 조형
물을 설치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후 이 동네 주민들은 대전의 대표적 달동네를 대전의
문화 1번지로 만들자며 '문화1번지추진위원회'를 결성하
였고, 대전시에서 공모한 '2008 무지개프로젝트 3차 공

모'에 1등으로 당선되어 2009년부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 1번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전의 대표적 달동네라는 낙네임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 동네의 언덕에 올라서면
동북쪽 계족산 끝자락에서 남서쪽 보문산 자락까지 180도의 확 트인 도시
풍광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그리고 서쪽 멀리 계룡산 줄기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다.
낮부터 밤까지 풍경을 달리하며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그동안 아는 사람만 아는 동구의 숨은 명소였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달동네를 문화 1번지로 만드는 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대전의 새로운 명소가 탄생한다. 2009년 12월, 총 4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진행된 '대동마을쉼터사업'에 의해 달동네의 언덕마루에 공원이 조성된 것이다.
벤치와 정자, 풍차를 설치해놓아 휴식을 취하며 도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면서 이곳을 하늘공원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벽화 그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2018년도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동하늘공원은 도심에서 해넘이와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대전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점을 살려 최근 대전시민은 물론 타지역의 청년들도 많이 찾아 오는 명실상부한 대전의 대표 관광지로 떠 오르고 있다.

2018년 동구 8경에, 2019년에는 국내 대표 야간관광지 선정 등 더 이상 도심 속의 적막한 소외지역이 아닌 살기 좋은 마을로, 또한 멋진 해넘이와 도시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대전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고 가고 있다.



11코스 ✦ 야간투어 - 환상의 빛 갑천반딧불이



스토리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3대 하천이 있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도시 곳곳에서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다. 먼저 대전 최고령 괴곡동 천연기념물 느티나무를 만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갑천 상류의 봉곡동 늦반딧불이 서식지를 찾아 가을밤 “환상의 빛 갑천반딧불이” 불빛과 별빛을 만날 수 있는 야간투어이다.



느낌

신비롭다/ 예쁘다/ 몽환적이다/ 깜깜하다



공간

괴곡동, 봉곡동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노거수 #갑천 #반딧불이 #갑천 #괴곡동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출발
대전시청
1번출구

괴곡동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봉곡동
아실마을

갑천 늦반딧불이
서식지

도착
대전시청
1번출구



코스별 소개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위치
대전 서구 괴곡동 985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45호

괴곡동 느티나무를 찾아가려면 가수원네거리에서 약 2km 장태산휴양림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고릿골 구름다리를 만나게 된다. 이 다리를 넘지 말고 밑으로 고릿골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다 호남선 철길 좌측으로 보이는 나무가 바로 괴곡동 느티나무이다. 호남선 지하통로를 통해 만나게 되는 괴곡동 느티나무는 이곳을 처음 찾은 사람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규모가 장대하다. 수령(700년) 또한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경치가 빼어나기로 소문난 괴곡동의 중심마을인 고릿골은

마을 지형이 고리와 흡사해 고릿골이라 불렀고, 오래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이기에 이 일대를 느티나무 괴(槐)자를 써서 괴곡리라 부르게 되었다.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의 이름은 '새뜸마을'인데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의 느티나무는 사실인지 알 길이 없지만 주민들은 갑천 상류에서 떼내려와 이곳에서 스스로 자랐다고 이야기를 전해준다.

나무의 밑 동 부분을 살펴보면 꿈틀거리는 문어 다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심장 같기도 해서 묘한 느낌이 들 정도로 특이한 형상으로 뻗어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 예전에는 가지에 줄을 매 동네 사람들이 그네도 탔다고 한다.

이 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 것은 2011년 8월 대전문화연대와 대전충남생명의숲이 공동으로 대전시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청원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취지는 전국 7대 도시 중 유일하게 대전시만이 노거수를 천연기념물 혹은 지방 기념물로 지정한 사례가 없었다. 다만 수목을 비롯한 다양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건립된 천연기념물센터가 대전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대전시만이 천연기념물 노거수가 없다는 점과 대전시 관내에 당시 약 180점의 문화재 중에 천연기념물 느티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다양성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이 청원의 이유였다고 한다. 이후 대전시의 노력과 문화재청의 조사를 거쳐 드디어 2013년 7월 17일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곳은 대전둘레산길 11구간에 해당하며 둘레산길을 걷는 시민들이나 갑천누리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대전에 천연기념물 느티나무를 직접 보려고 차를 타고 오는 분들까지 매일 수 백명이 이 나무를 찾아온다고 한다.

현지 안내문

느티나무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높이가 30m 정도까지 자란다. 수명이 길고 모양이 아름다우며 나뭇잎이 단정하여 예로부터 충과 효와 예의 나무로 여겨졌다. 단풍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어 가로수나 정자나무로 많이 심었다.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는 전체 높이가 약 16m, 가슴 높이에서의 둘레가 약 9.2m로,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한다. 나이의 나무는 약 700년으로 대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다. 이 나무는 마을을 보살펴 주는 나무로 여겨져, 마을 주민들이 매년 음력 칠월 칠석에 나무 앞에서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칠석제를 지낸다. 또한 나무를 통해서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도 하는데, 봄에 새잎이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이 나무는 나이, 모양 및 문화적 가치 등으로 2013년 7월 17일에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이 나무는 마을 주민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봉곡동 아실마을

2

위치

대전 서구 봉곡동 519

※ 아실마을 스토리는 40쪽 새벽여행-영원히 대를 이을 갑천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갑천 늦반딧불이 서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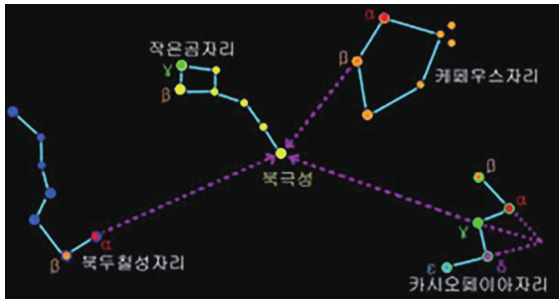
3

위치

대전 서구 봉곡동 510

아실마을에서 약 1km 갑천 우안 독길을 따라 걸어가면 가장 많은 늦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는 유천동마을의 넓은 독방이 나타난다. 이곳에 다시 독길을 따라 300여 미터 지점까지 8월 말에서 9월 하순 저녁 7시 30분~8시 30분 사이에 얼마나 머물며 관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시간 동안 날씨에 따라 수십 마리에서 100여 마리까지도 관찰이 가능하다.





사실 이곳 유천동마을은 늦반딧불이만 보려고 오는 곳은 아니다. 주변에 불빛이 없어 맑은 가을밤이면 북극성,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등 하늘의 수많은 별을 관찰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다. 별빛과 하늘을 나는 반딧불이를 함께 보노라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겐 어릴적 추억이 떠오르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도 한다. 별빛과 반딧불이의 불빛, 어둠 속을 걸어 이곳에 함께 온 사람들과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가 잘 어울려 대전에서도 멋진 반딧불이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고마움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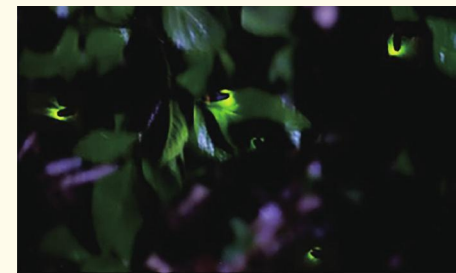
2006년 당시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조사에 따르면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천 상류 진달래 공원 일대, 봉곡동 유천동마을 맞은편, 흑석동 노루벌, 유등천 뿌리공원, 청소년수련마을, 보문산 사정공원 계곡, 대전천 상류일대, 보광노인병원 안쪽 계곡 산흥초등학교 등이 반딧불이 주요 출현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전 50여 개 지점에서 반딧불이가 나타난 것으로 대전 반딧불이 지도도 제작했는데, 2022년 현재는 훨씬 많은 장소에서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 : 늦반딧불이

늦반딧불이는 반딧불이과의 곤충이다. 몸길이는 15~18mm이다. 머리는 넓은 앞가슴등판 밑에 숨겨져서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앞가슴등판은 뒤쪽이 등황색이나 양옆의 앞쪽은 맑고 투명하다. 몸의 대부분은 암갈색 내지 흑갈색이며, 배의 뒤쪽에 있는 발광기관은 황백색이다.

암컷은 날개가 없으며 몸은 수컷에 비해 크고, 눈은 작다. 더듬이는 수컷보다 짧다. 애벌레는 달팽이나 고동류를 잡아먹고 산다. 유충이 땅에 서식하는 육서종이지만, 습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는 지역인 계곡 주변의 산기슭이나, 강 주변의 제방 등에서 서식한다. 성충은 8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나타나는데 땅의 표면이나 풀줄기에서 불빛을 내는 암컷에게 수컷이 날아와 짝짓기를 한다. 한반도 중·남부와 제주도에 서식하며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12코스 ✦ 야간투어 - 갑천 엑스포 야경투어

📅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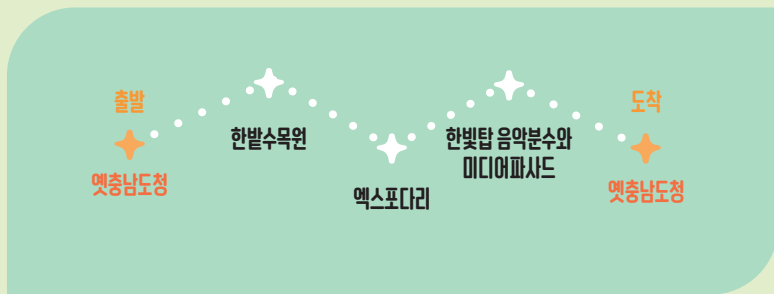
대전에서 어디가 가장 야경이 멋질까? 식장산 혹은 대동하늘공원이 유명세가 있었다. 2022년 신세계 백화점이 오픈하면서 갑천 엑스포 다리 일대는 이제 해넘이와 함께 최고의 야경투어 명소가 되고 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한빛탑에서 진행하는 미디어파사드와 음악분수 등과 어울려 특히 여름철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갑천 엑스포 야경투어” 중부권 최고의 야경 명소를 만끽하는 야간투어이다.

🗨️ **느낌** 아름답다 / 예쁘다 / 과학적이다 / 최고다

📍 **공간** 만년동, 도룡동 일대

#한밭수목원 #갑천노을 #엑스포다리 #한빛탑 #음악분수 #미디어파사드

🕒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



<둔산대공원과 한밭수목원>

코스별 소개

한밭수목원

📍 위치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

한밭수목원은 한마디로 도시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성이산, 갑천과 유등천, 수목원, 정부대전청사, 시청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에 연계된 중부권 최대의 도심 속 수목원이다. 식물 종(種) 뿐만 아니라 생물 서식 공간으로서의 생태환경과 경관이 우수하며, 대전에 솔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대전연정국악원, 천연기념물센터, 곤충생태관, 열대식물원 등 문화예술공간과 한밭수목원이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메카이며, 대전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4월 28일 서원을 처음 개원하였고 2009년 5월 동원, 2011년 10월 열대식물원을 조성하여 오늘에 모습을 갖추었다.

총면적 371천㎡의 인공 구릉지에 무궁화원, 야생화원, 관목원, 목련원, 암석원 등 24개 주제별로 목본류 1,105종, 초본류 682종 총 1,787종의 식물자원을 식재·전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의 탄소 저장소"라고 불리는 맹그로브를 주제로 한 열대식물원도 조성되어 있다.

서원에는 습지원을 중심으로 넓은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돛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다. 동원은 화목정이 있는 인공연못의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망대에 오르면 갑천을 중심으로 둔산대공원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대전을 둘러싼 둘레산과 주요 건물들을 찾아보는 묘미도 느낄 수 있다.

5~6월이면 장미원에 활짝 핀 장미를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으며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다.

엑스포다리와 대전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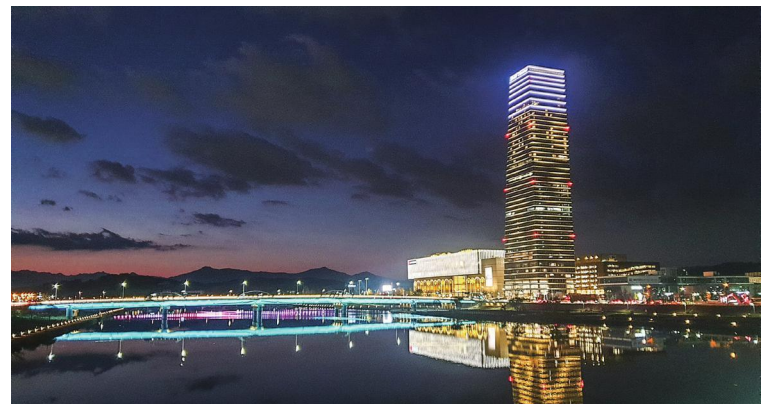
위치
대전 유성구 도룡동

2

1993년 대전엑스포는 여러 면에서 대전의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는 행사가 되었다. 전국 각지 시민들이 대전으로 향했고, 목표관람객 1천만 명을 40% 초과 달성한 1천 4백만 명이 방문했다. 대전엑스포는 대전이 과학도시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대전 신세계 Art & Science는 몇 년간 활용방안을 찾던 노후화되고 있던 대전엑스포공원을 대전지역의 새로운 심장부로 재탄생시켰으며 엑스포다리와 한빛탑공원 일대는 새로운 야경 명소로 급부상하였다. 대전 발전을 이끈 1993년 대전엑스포를 기념한 193m의 신세계 엑스포 타워가 건설되어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엑스포다리와 신세계사이언스빌딩, 대전컨벤션센터, 스마트시티에 이어지는 야간조명과 갑천의 물결을 물들이는 화려한 조명은 저절로 셔터를 누르게 되는데 갑천과 어우러진 야경이 일품이다.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탑 음악분수와 미디어파사드

위치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3

둔산대공원과 엑스포다리, 한빛탑을 연결하는 야경 코스는 대전의 대표적인 데이트 장소로 떠오른 곳이다. 엑스포과학공원내 새롭게 리뉴얼된 한빛탑광장에는 음악분수, 물빛광장, 사이언스트리와 그늘막쉼터가 설치되어 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힘찬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조명까지 어우러져 아름답고 웅장하기까지 하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3시-밤 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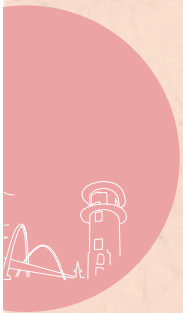
한빛탑미디어파사드는 한빛탑의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LED조명을 비춰 각종 영상을 표현하는 공연으로 한빛탑 꼭대기에서 높이 쏘아올리는 LED 조명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음악분수가 시작되는 시간이면 가족단위와 연인들이 돛자리를 깔고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도심 속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공연시간표

순서	시간	내용
1회	15:00	음악분수
2회	16:00	음악분수
3회	17:00	음악분수
4회	19:00	음악분수
5회	19:30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6회	20:00	음악분수
7회	20:30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8회	21:00	음악분수

2022
대전스토토리
투어



역사투어

13코스 대전 100년 여행

14코스 신채호와 권이진을 만나다

15코스 원하는 대로 맞춤여행



13코스 ✦ 역사투어 - 대전 100년 여행

스토리

대전의 근대는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대전역 신설로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본정통(현 대전로)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도시축이 먼저 개발되었다. 이곳에 공주목 산내면 대전리(한밭)라는 마을이 있었던 바로 한밭이다. 인근의 대전장터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 중촌동에서 해방과 한국전쟁 등 역사 해설을 들으며 시간여행을 하는 역사투어이다.

느낌 슬프다 / 의연하다 / 강직하다 / 근대적이다

공간 중촌동, 원동, 인동, 선화동 일원

#동양척식주식회사 #3.1만세운동 #옛대전형무소 #대전근현대사전관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코스별 소개

옛대전 형무소터와 망루

위치
대전 중구 중촌동 16-1 일대

문화재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47호
(구 대전형무소 망루)

옛대전형무소를 잘 모르는 대전시민들이 많다. 심지어 중촌동과 인근 목동 주민들도 도로가에 있지만 형무소 망루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쉽게 설명하면 선병원 맞은편 중촌동 현대아파트 근처에 있다고 하면 대부분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1919년 전국적으로 3·1운동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일제는 부족한 수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감옥을 신축하게 된다. 대전감옥은 1919년 5월 8일 조선총독부령 86호에 의해 대전군 대전면 중촌정(현 중구 중촌동)에서 개소하였다. 일제가 대전감옥 신설을 계획한 것은 1917년부터였다. 1918년에는 대전감옥 부지 대부분을 매입했고,



감옥 설계도도 제작했다. 규모는 대지 34,000평 연면적 14,000평이었고,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것은 1924년이었다. 1923년에 명칭을 대전감옥에서 대전형무소로 개칭한다. 일제가 대전감옥을 신설한 목적은 영등포 이남의 독립운동가와 사상범을 수감하기 위해서였다. 대전감옥을 '중구금시탈'로 설계한 조선총독부는 독립운동가들의 감옥과 일반 감옥 사이에 벽을 쌓아 '감옥 안의 감옥'을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여운형, 안창호, 김창숙 등을 포함해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들이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고된 수형 생활과 고문 등으로

옥사한 이들도 상당했다고 한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전국 형무소는 텅 비었다.

하지만 일 년도 되지 않아 3·8선 이남의 19개 형무소는 다시 꽉 차게 되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절도'였다. 해방 직후부터 귀환 동포가 유입되어 인구가 급증했으나 미군정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1946년 봄부터 자살자가 늘고 범죄도 늘었다.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먹을 것을 훔쳐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단독선거를 앞두고 좌우 대립이 극심해졌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형무소 상황은 급변했다. 이승만 정부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몰아 형무소에 잡아 가두기 시작한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 지 몇 개월 후인 1949년, 대전형무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형무소는 사상범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제주 4.3사건 속에 7년형을 선고받은 300여명이 대전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여순사건 직후 대전지방검찰청 내에는 임시육군중앙군법회의(일명 대전고등군법회의)가 특설되었고, 1948년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10차례 걸쳐 최소 700여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중 55명은 11월 27일 모처에서 총살당했다. 총살은 면한 사람들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50년 당시 대전형무소의 직원은 240명이었으며, 수용 가능 재소자 수는 1,200명이었다. 하지만 대전형무소 재소자의 수는 제주4·3사건, 여순사건, 그리고 숙군 관련 재소자들이 대거 수감되면서 1948년 5월 1,875명에서 1949년 3,041명으로 급증했다. 당시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들은 주로 국방경비법위반으로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람들로 특별사에 따로 수용되었는데, 수용 공간의 부족으로 7~8명 정도 수용 가능한 감방에 15명이 수용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 당시 대전형무소 재소자 수는

약 4,000명이었고 이중 2,000명 정도는 정치·사상범이었다. 전쟁 발발 후에는 대대적인 예비검속으로 보도연맹원 등이 대전형무소에 대거 수감되기 시작하였다. 대전형무소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동서남북 네 곳에 망루가 있었고, 건물은 가운데 중앙 간수소를 중심으로 감방, 공장, 청사가 부챗살처럼 뻗어 있는 파놉티콘(Panopticon)의 형태의 감시구조를 띠고 있었다. 한국전쟁 무렵 감옥으로 사용된 건물은 16개 동이었고, 일반 죄수를 가두는 1사, 2사, 3사, 4사가 정문 쪽에 위치하고, 그 옆에 형이 가벼워 공장에 나가 일하는 잡범들을 임시 수용한 가사가 있었다. 인민군 점령 시기에 대전형무소는 잠시 인민교화소로 불렸다.

1961년부터는 대전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도심의 확장에 따라 1984년 3월에 대전교도소가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했고, 당시 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1987년 현대 아파트가 들어섰다. 현재 남아 있는 감옥의 흔적은 우물과 망루 하나뿐이다. 망루는 2001년 6월 27일 대전 문화재 자료 제47 호로 지정됐다. 현존 망루의 건립시기를 그동안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최근 1971년 12월 20일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형무소 터에는 커다란 왕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형무소 이전 과정에서 형무소 내 다른 곳에서 옮겨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평화의 나무'라고 부른다.



이곳에서는 한국전쟁시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발생한다.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여순사건, 제주4.3 관련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등을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중순까지 산내 골령골에서 최소 40 00여명(추정) 이상을 학살한 사건과 반복되지 말아야 할일이 9월 하순 우익인사 1,557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조사결과)이 일어난다.

최근 옛대전형무소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여기가 옛날 형무소였다. 6.25때는 학살이 있었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다. 사실 누구도 관심 없었던 장소였다. 그런데 2010년 마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개되면서 우리 마을의 역사와 자원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마을 조사를 통해 알아보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은 고민했다. '이곳의 아픈 역사를 드러내고 치유하자, 그리고 평화교육의 현장으로 옛형무소터를 새롭게 재생하자',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판단으로 왕버드나무 안내판에 주민들의 고민을 담게 되고, '마을 평화기행'이란 이름으로 옛대전형무소터의 망루, 우물, 왕버드나무를 중심으로 평화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게 되었고 대전시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역사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주변을 정비하고 관련 안내판과 조형물을 설치하게 이른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평화의 나무 안내판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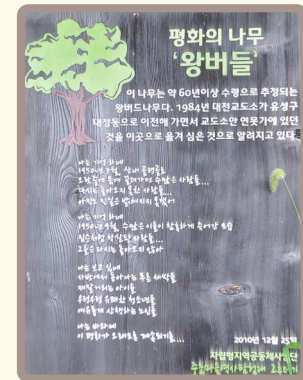
평화의 나무 '왕버들'

나는 기억하네
1950년 7월, 산내 골령골로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던 수많은 사람들 ...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어

나는 기억하네
1950년 9월, 수많은 이들이 참혹하게 죽어간 모습
짐승처럼 학살된 사람들 ...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나는 보고 있네
사방에서 돌아나는 푸른 새싹들
재잘거리는 아이들
우렁우렁 유쾌한 청소년들
여유롭게 산책하는 노인들

나는 바라네
이 평화가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



2010년 12월 25일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단 중촌마을역사탐험대 그루터기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를 찾아가려면 대별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산내초등학교 직전 삼거리에서 곤룡 터널 방향으로 약 900여 가다 보면 좌측에 교회와 공터가 보인다. 이곳에 학살지 안내판과 표석이 있다.

대전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당시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여 일간 법적 절차 없이 충남 지구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보도 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최소 1,800명 이상, 최대 7천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당해 암매장당한 비극의 현장이다. 하지만 학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9·28수복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부역 혐의를 받은 이들은 1950년 6월 28일 공포된 긴급명령 1호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특별

조치령)' 위반으로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사형을 선고 받아 산내골령골로 끌려가 학살당했다. 또한 형무소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병사·동사하거나, 고문과 가혹 행위로 사망하기도 했으며, 열차로 대전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재소자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 시기 학살당하거나 사망한 인원은 제대로 추산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조치령은 단심제여서 단시일에 가혹한 처벌을 가능케 한 문체적 법령으로서 시행 당시부터 그 위헌성이 지적되어 왔다.

한국전쟁 초기 학살 사건 직후 산내 골령골 현장을 방문한 영국 일간지 <데일리 위커>의 앨런 워닝턴 기자는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라는 팜플렛 기사에서 "6개의 구덩이는 6피트 깊이에 6~12피트의 너비로 파여있었다"며, "가장 큰 구덩이가 200야드였고, 2개는 100야드, 가장 작은 것은 30야드였다"고 밝히고 있어, 그 구덩이들을 모두 이으면 1km, 1천 미터에 달한다. 그래서 산내 골령골을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부르기도 한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 결과 34구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2015년 민간 차원의 유해발굴에서는 18구의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된

7천여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500여명(7%)뿐이고, 현재까지 발굴된 유해도 50여구(0.7%)에 불과하다. 아직도 차가운 땅속에는 발굴되지 못한 유해들이 방치되어 있어 유가족들은 하루 빨리 유해발굴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다.

다행히 2016년 행자부에서 진행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사업 공모에 동구의 산내 골령골 낭월동 일대 10만㎡ 규모의 부지를 후보지로 정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대전 산내 골령골은 파급 효과, 접근성, 역사성, 자치단체 의지 등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조성부지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소제동 철도관사촌

2

위치

대전 동구 소제동 299-70번지 일대

요즘 소제동하면 뭐가 떠올라? 라고 물으면 아마도 소제동 카페골목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3-4년 전부터 소제동에 커피숍과 찻집, 카페, 음식점 등이 생기면서 젊은 이들이 많이 찾는 대전에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는 20여개 업체가 성업 중인 가운데 이 공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대전에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시도이다.' '철도관사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려 대전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존과 개발 관심없어. 사진찍고 싶고 이쁘면 되지 대전에 갈곳도 없는데 난 좋은데...' '이건 몇몇 업체의 부동산 투기야 두고 봐.'

'그렇듯 하지만 관사들도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대부분 훼손되었지, 이는 철도관사촌에 대한 경관훼손이자 보존을 가장한 명백한 투기일 뿐이다.'

이렇게 다양한 시선이 소제동을 바라보고 있다.

소제동은 과거 소제호라는 호수가 있던 아름다운 마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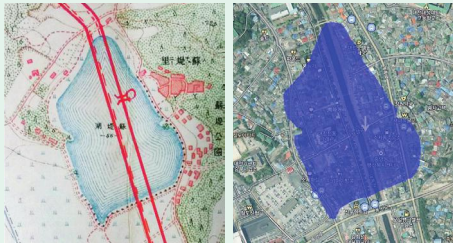
< 소제동에 처음 문을 연 카페 별 >

었다고 한다. 1927년 무렵 호수를 메우고 그곳에 1930년대 후반에 철도관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 당시 지었던 철도관사가 현재 수십채 남아 있지만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대부분 철거되고 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존치구역 부근에 몇채 정도가 남아 것으로 보여진다. 소제동에서 솔랑시울길을 걸어보면 1920년대 후반의 철도관사도 만날 수 있다. 2012년부터 소제동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기록하고 마을 공간과 철도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업 및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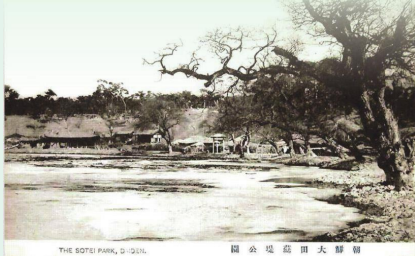
소제창작촌도 방문할 수 있다. 골목 골목의 숨은 이야기와 오래된 나무 전봇대, 대전에서 이발소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대창이용원 등 1970-1980년대의 골목 풍경이 곳곳에 아련히 남아 있는 장소이다.

참고 소제호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일제는 대전천과 대동천 치수공사를하며 대동천 물길을 아래 지도와 같이 소제호를 가로지르게 내면서 소제호 매립공사를 하였고, 이때 소제호를 메우기 위한 토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솔랑산과 그 인근의 구릉들이 깎이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던 소제호 주변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경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2021년 현재 소제호 뚝방길은 아직도 약 70%이상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제호의 크기에 대해 여러 가지 기록을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소제호 뚝방길을 기준으로 볼 때 호수의 크기는 약 25,000여평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소제호(대전지도 1918년) > < 소제호(위성지도 2018년) >



< 일제강점기 소제호를 찍은 사진엽서 >

참고 소제방죽의 머느리바위 전설

소제방죽 자리엔 원래 큰 부자가 살았다 한다. 아주 옛날 이 집터에 처음 살았던 부자영감은 인색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하루는 머슴을 시켜서 외양간 두엄을 치고 있었는데, 마침 스님 한 사람이 시주를 받으러 집 문전에 와서 목탁을 치고 있었다. 인색한 주인은 두엄을 스님의 발우에 퍼 넣었다. 그렇지만 스님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공손히 합장한 다음 그 자리를 물러났다.

스님의 발우에 두엄을 퍼 넣는 것을 부엌에서 바로본 그 집 머느리는 스님을 뒤 쫓아가 스님께 사과하고 얼른 스님 발우에 쌀을 붓고 돌아섰다. 스님은 걸어가는 그 집 머느리를 불러 "내일 아침에 베를 짜던 베틀을 가지고 앞산으로 올라오시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선 안됩니다."하고 말했다. 그 다음날 머느리는 스님이 말한 대로 베틀을 안고 앞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머느리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스님의 말대로 앞만 보고 걸었다.

머느리가 산을 거의 올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산을 오를수록 하늘이 더욱 컴컴해졌다. 그러더니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치기 시작했다.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뒤에서 크게 하늘을 진동시키는 것이었다.

머느리는 갑자기 스님의 부탁을 잊은 듯 집이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자기가 막 떠나온 집으로 불빛이 몇 번이고 내려 비치더니 집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위로 마치 큰 바다의 파도 같은 물결이 공중에서 내려와 자기 집 주위를 둘러싸고 못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못이 바로 소제방죽이다.

머느리가 너무 놀라 발길을 집 쪽으로 디뎠을 때였다.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더욱 크게 뇌성벼락이 내리치더니 순식간에 머느리를 바위로 만드는 것이었다. 베틀을 안은 채 뛰어가려는 자세 그대로의 바위였다. 이 바위가 소제동의 머느리바위이다.

구)동양척식 주식회사대전지점

위치

대전 동구 인동 74-1

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제 98호

3



원동네거리에서 인동방향으로 약 100m만 가면 우측으로 오래된 건물이 하나 보인다. 바로 구)동양척식주식회사대전지점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는 영국이 인도에 설립한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와 같은 것으로 일본이 중국과 조선의 식민지 경영을 위해 1908년에 설립하였다. 주된 사업은 일본인의 이민과 현지에서의 토지경영이었다. 일제 식민정책의 최전선에서 조선의 토지와 자본을 잠식하는 침병이었다. 동척 대전지점 건물은 1922년 12월에 준공되었다. 대전지점은 이보다 앞선 1921년 4월에 개설되었는데, 강경과 수원의 지점을 통폐합한 뒤 대전으로 옮겨온 것이다. 1920년대 대전의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조치로 보인다. 동시에 조선의 철도망이 완성되어가면서 지역의 헤게모니가 과거 항구도시에서 내륙 철도 도시로 이동한 결과이기도 했다. 동척 대전지점의 관할 구역은 충청남북도 전역은 물론 무주와 익산 등 전라북도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인동시장/ 만세운동기념비

위치

대전 동구 인동 30-7 일대

4

동척 본점은 경성에 있었으나 1917년에 동경으로 옮겼다. 지점은 부산과 대구, 대전, 평양 등 총 9곳이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물은 부산과 목포, 대전 단 3곳이다. 부산과 목포 지점은 현재 근대사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며, 대전지점은 전신전화국 등으로 사용되다가 1984년 이후 민간에 매각되어 현재까지 상업시설로 쓰이고 있다.

건물은 정면 2층 위쪽의 페디먼트를 중심으로 양쪽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고, 위쪽 처마선 아래에는 수평 돌림띠가 둘러 있으며 창틀 상인방은 정교한 부조로 되어 있다. 상업시설로 개조되면서 외관과 내부가 많이 변형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대전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근대 건물로 가치가 인정되어 2004년 9월 국가등록문화재가 되었다.

대전천 보문교와 인창교 사이 우안 둔치에 만세로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천변 우안도로인 인동시장 앞 대전천동로 인도에 만세운동기념비를 찾을 수 있다. 대전지역의 3·1운동은 4월 3일까지 대전 인동·유성·유천·갈마·회덕·산내·가수원·세천 등지에서 총 19회에 걸쳐 연인원 3,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4월 1일은 인동과 유성을 비롯해 회덕, 산내, 갈마(치마)까지 대전의 독립만세운동 중에 가장 격렬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날로 대전 3·1운동에서 최대 절정의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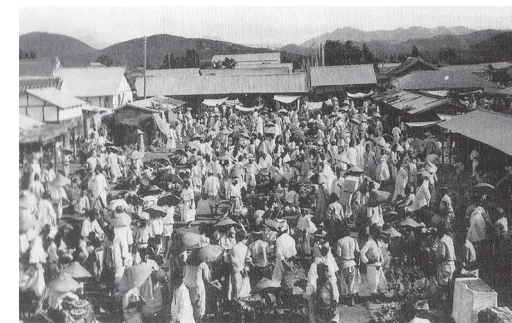


일제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경찰·헌병대·보병대를 파견하여 무차별적 사격을 가하여 30여 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주도 인사를 포함한 만세 군중을 40여 명 이상 체포하여 고통을 가하였고 이중 13명을 재판에 회부하여 옥고를 겪게 하였다. 대전 동구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3월 16일에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16인동장터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독립만세 운동 역사를 테마로 한 벽화를 조성하였고, 2019년 4월 3·16인동장터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세 광장에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 뒷면에는 인동장터 만세운동의 유래가 적혀 있다.

인동장터 만세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우선 명칭의 문제이다. 1919년 당시는 인동시장이 아닌 대전장이었다. 인동이란 지명은 1946년 이후에 부르기 시작한 지명이다. 그렇다면 인동장터 만세운동이 아닌 대전장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동장터에서 첫 번째 만세운동이 발생한 날짜가 1919년 3월 16일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이날 시위에서 '15명이 사망하였고 수십 명이 부상하였으며 9명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도, 이들 중 재판관을 받았거나 공적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날 행적에 거짓 행적을 끼워 넣어 가짜 독립운동기를 만들어 내려다가 적발된 시도도 있었다. 때문에 3월 16일 만세운동은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인동 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는 논란이 있는 3월 16일을 기념하기보다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고증된 3월 31일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재연행사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제강점기 대전장 모습 >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전충청남도청구본관

5

위치

대전 중구 중앙로 101(대전 중구 선화동 287-2)

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

대전이 근대도시로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은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대전역이 만들어진 이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1932년부터다.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지면서 도청 관련 시설들이 들어섰다. 이 무렵에 대전 중심가에 상수도과 가로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청의 대전으로의 이전은 일제의 착취를 위한 식민지 개발정책의 일환이었다. 한반도 강점 이후 일제는 경성을 중심으로 X자형의 철도망을 구축한 뒤 이를 골간으로 식민지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대전의 충남도청은 1931년 6월 15일 착공하여, 그해 12월 12일 상량식, 1932년 8월 29일 준공됐다.

공사 기간이 불과 1년 정도였다. 이는 도청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 공주지역을 의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지 6천평은 공주 갑부 김갑순(金甲淳)이 기부하였다고 하나, 1938년 기준으로 대전 시가지의 전체 토지 57만 8천 평 중 그가 소유한 땅이 22만평이었다고 하니, 김갑순은 도청 이전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설계는 조선총독부 건축과의 이와스키 센지(岩槻善之)와 사사 게이이치(笹慶一)가 맡았으며, 시공은 대전의 건축업자였던 스즈키 겐지로(須須木權次郎)가 담당했다. 해방 후에는 이곳을 미 군정청이 사용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정부가 임시 천도를 결정, 1950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충남도청은 임시중앙청으로 사용됐다. 이는 짧은 기간이지만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첫 임시수도의 기능을 대전이 수행한 것으로 한국 현대와 지역사에 있어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건물 외벽은 당시 유행하던 밝은 갈색의 스크래치 타일을 사용했으며 1층 내부의 벽면은 요철(凹凸) 모양으로 파내어 장식하였고, 기둥과 기단의 각은 곡선으로 처리하였다.

1937년 일본의 시즈오카현 청사 본관 외관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당시 1930년대의 관공서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옛 충남도청 건립 당시에는 벽돌식 2층 건물이었으나, 1960년에 3층이 증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전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인 대전충청남도청구본관(등록문화재 18호)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2013. 10. 1개관) 및 충남도지사 집무실 일부가 개방되어 있어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 약 100년간의 대전의 역사와 발전상, 원도심의 다양한 모습들을 느껴볼 수 있으며 도청사 내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획전시실이 있어 역사는 물론 건축, 디자인, 민속, 미술 전시 등 여러 분야의 특별전과 순회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옛 충남도청사 본관을 활용한 도청사 투어와 음악회, 공연, 영화 ‘변호인’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이곳에서 촬영되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대전관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한다.



14 코스 ✦ 역사투어 - 비대면 신채호와 권이진을 만나다

스토리

대전의 대표 인물은 조선시대 박팽년, 송시열, 신채호이다. 대전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난 단재 신채호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다. 생가에서 선생의 역사의식과 독립정신을 생각해 본다. 대전 중구 무수동은 안동권씨의 집성촌이다. 안동권씨의 대표 인물인 유희당 권이진의 별당에서 '호'를 배워보는 역사투어이다.

느낌 시골스럽다 / 대단하다 / 존경스럽다 / 강직하다

공간 무수동, 어남동 일원

#유등천 #뿌리공원 #유희당 #권이진 #신채호 #독립운동가 #역사학자

코스 3시간 20분 / 버스



코스별 소개

단재 신채호 생가

1

위치

대전 중구 어남동 233

문화재

대전시 기념물 제26호

※ 단재 신채호 생가 이야기는
53쪽 새벽여행 - 독방을 거닐며 버드내
새벽 산책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유희당과 권이진

2

위치

대전 중구 무수동

문화재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6호

오월드 부근의 언고개를 넘어가면 침산교가 나오는데 다리를 건너가면 뿌리공원 상류의 침산동 방아미 마을이 나오고 다리를 넘지 말고 정생동 방향으로 조금 더 가다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가면 보문산 치유의숲과 무수천하마을 안내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이 바로 유희당을 포함한 수 많은 중구의 문화유산이 있는 무수동 마을이다.

송촌동에 동촌당이 있다면 무수동에는 유희당이 있고, 송촌 계족산 자락에 비래암이 있다면, 무쇠골 보문산 자락에 여경암이 있다. 송촌이 은진송씨 집성촌이라면 이곳 무쇠골은 안동권씨의 집성촌이다.



< 2002년 유회당 모습(대전 중구 무수동 95) >

참고 유회당(有懷堂)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6호

유회당은 조선 영조 때 호조판서이며 우암 송시열의 외손인 권이진이 그의 부친 권유의 묘소를 마을 뒤에 모시고 부모의 은덕을 끝내 잊지 못하여 이곳에 1708년 강당을 짓고 자신의 호를 따서 유회당이라고 하였다.

‘유회란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사 치연무자(錢汝齊)의 『明發不寐 有懷二人』이란 글에 서따온 것으로 부모를 간절히 생각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늘 품고자 하는 뜻이다.

유회당 정면으로 난 솥물샘을 들어서면 활수담(活水潭)이라고 이름 붙인 작은 연못이 있고, 그 중앙에는 돌다리가 놓여져있다. 유회당은 이 연못의 뒤쪽에 자연석으로 높게 쌓은 축대 위에 건립되어 있다.

유회당은 앞 칸 4칸, 옆칸 2칸으로 앞면과 양쪽 면에 평난간이 둘러진 툃마루가 있고 중앙에 우물마루의 넓은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하였다.

대청에는 증조부인 만회 권득기의 ‘십자훈(十字訓)’이 걸려 있는데 내용은 “매사필구시(每事必求是) 무락제이(無落第二義)이다. 뜻은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것을 구하고 의롭지 않은 일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유회당을 방문할 때 각자의 집안 가훈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다.

밖으로 나가면 유회당 후원의 오른쪽에 있는 ㄱ자형 건물은 숙종 41년(1715) 부모의 묘를 지키기 위해 지은 삼근정사(三近精舍)가 보이고, 왼쪽 건물은 사당이다. 가운데는 수령 약 200년 정도의 반송이 있는데 아마도 대전에서 가장 멋진 반송이 아닌가 싶다. 대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묘(待墓)건물로 알려졌지만 첨배소(瞻拜所)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며, 삼근정사는 선친 권유(權惟)의 묘, 담 옆을 흘러가는 시냇물, 시냇물 옆에 우거진 철쭉 숲, 이 세 가지가 가깝다는 뜻으로 삼근(三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만, 후손계서는 부모의 묘와 돌확, 종가라고 정정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옆에 좌측에 있는 재실인 기궁재(奇窮齋)는 ㄱ자형 평면으로서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안방, 건넌방, 주역 등이 있는데, 1920년 중건하였다고 한다.



참고 권이진(權以鎭) 1668-1734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정(子定), 호는 유희당(有懷堂)·수만헌(收漫軒)이다. 권득기(權得己)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권시(權諤), 아버지는 현감 권유(權惟), 어머니는 송시열(宋時烈)의 딸이다. 윤중(尹拯)은 고모부이다. 1693년(숙종 19)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울봉역·김천역의 찰방을 거쳐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그 뒤 1706년에는 정언을 역임하고, 1710년 동래부사를 역임했다. 당론으로 인해 벼슬길이 순탄하지 못했으나, 1721년 승지에 올랐으며, 이듬해 사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8년(영조 4)에는 이인좌의 난을 수습한 공으로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이해 호조판서가 되어 궁중에서 민간의 전답을 매입하지 말 것과 공물을 정액 이상으로 거두지 말 것 등을 건의했다. 1733년에는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했고 글씨에도 능했으며, 사람됨이 무실하고 강직했다. 저서로는 『유희당집』이 있다. 시호는 공민(恭敏)이다.



< 권이진 선생의 유품 >

참고 광영정(光影亭) 1668-1734

무수동의 아랫말에 있는 광영정은 대전에서 현재 남아 있는 정자 중 유일한 초기정이다. 유희당의 큰아들인 권형징이 유희당의 종가 가모 앞에 이 정자를 세웠다. 그 옛날 광영정의 옆에는 배회담(徘徊潭)이란 연못이 있었는데 "천광운영공배회" 한다는 뜻에서 광영정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1710년 세워진 이 건물은 목조 초가지붕으로 그 지붕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 마루는 네모져 마치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남)을 상상케 한다.

이 정자의 동쪽에 관가헌(觀稼軒), 서쪽에 수월란(受月欄), 북쪽에 인풍루(引風樓), 남쪽에 광영정(光影亭)의 현판이 붙어 있고 정자의 앞에는 시가 있으며, 뒤에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을 배회담(徘徊潭)이라 하며, 못 좌우에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 광영정 모습(대전 중구 무수동 299-4) >



15코스 ✦ 역사투어 - 원하는 대로 맞춤형 여행

신청자격

15인 이상 단체만 신청 가능.

여행 주제 및 코스

아래의 주제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여행코스'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문의

핸드폰 010-2405-4728 / 전화 042-252-3305

주제 예시

1. 산성의 도시 대전(계족산성, 질현성, 능성)
2. 덕을 품은 고을 회덕(덕춘당, 쌍청당, 우암사적공원)
3. 도시숲 보문산의 생태와 문화(보문산마애불, 보문산성)
4. 도시재생 현장 투어(신탄진동, 대동, 원도심)
5.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여행
6.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갑천노루벌, 월평공원습지, 탐립돌보)
7. 돌장승의 도시 대전(읍내동장승, 법동장승, 용운동장승)
8. 노거수가 있는 마을(과곡동느티나무, 말채나무)
9. 대전 바위구멍 여행(비학산바위구멍, 대동울판바위, 당산바위)

※ 기타 원하는 주제와 코스로 맞춤형 여행 설계가 가능함.



2022년 비대면 미션형 대전스토리투어



비대면 신청하기



투어 설명서

비대면 미션형 대전스토리투어 참가자 모집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스토리투어에 가족과 지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미션형 대전스토리투어”를 기존 대면 방식의 스토리투어와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재미있는 미션과 선물이 푸짐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 기간 : 2022년 7월 4일(월) - 11월 11일(금)

투어 기간 : 2022년 7월 9일(토) - 12월 3일(토)

모집 팀수 : 200팀 / A형(가족팀), B형(지인팀)

팀 인원수 : 2인-4인 / 최소 2인 이상 신청 / 1인 신청은 불인정.

참가비 : 무료

제공하는 것 : 미션키트(신청자의 주소지로 택배 배송)

* 미션키트 내용물 : 대전 스토리북(1권), 마스크(4개), 손소독제(1개), 선물(1개), 볼펜(2개) 등 5가지 구성품.

투어 코스 : 4개 코스

- 마을여행(1개) : 대흥동 테마마을
- 새벽투어(1개) : 대청호에서 해맞이 해볼래?
- 야간투어(1개) : 하늘과 별이 가까운 대동하늘공원
- 역사투어(1개) : 신채호와 권이진을 만나다

* 4개 코스 중 1개의 코스를 선택하여 진행하고, 이후 시간이 가능하면 다른 코스도 스토리북을 참고하여 가족, 지인들과 함께 투어를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1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 인원수, 팀(A,B)유형, 코스 선택, 투어 날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
- 2 신청 후 신청 확인 문자를 3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음.



비대면 스토리투어 신청하기

투어 방법 * 직접 장소를 찾아가실 때 카카오맵에서 검색하시면 편합니다.



투어 참고사항

- 코스별 장소 중 주차가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투어 진행 전에 주차할 장소를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투어 이외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투어도 함께 진행됩니다. 관련 정보는 "대전스토리투어2022" 밴드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미션 정답 확인 : 큐알코드에서 확인

투어 종료 후 "투어 참가 확인증" 문자로 발송합니다.

투어 문의 : 042-252-3305 / 010-2405-4728



설문지 작성



미션정답확인

마을여행 : 대흥동 테마마을

스토리 : 대흥동은 '크게 흥하다'라는 뜻이다. 2021년 12월 대전에서 처음으로 테마마을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사)대전문화유산울림의 테마박물관 주민큐레이터들이 직접 마을투어를 진행한다. 박물관 주변 골목길 걷기, 박물관 전시 관람, 보문산 보리밥 체험, 테미오래를 투어한다.

느낌 : 따뜻하다 / 고향같다 / 맛있다 / 추억하다

공간 : 대흥동, 대사동 일원

동선 : 3시간 20분 / 개인차량 이동

(출)참가자 집 → 테미마을박물관 → 대사동느티나무 → 테미오래 → (도)참가자 집

동영상 해설 보기



테미마을박물관



테미마을 여행안내

위치 정보 / 출발과 도착은 투어 참가자의 집입니다.

- 1 테미마을박물관 : 대전 중구 대흥동 110-1
- 2 대사동느티나무 : 대전 중구 대사동 104-8
- 3 테미오래 : 대전 중구 보문로 205번길 13(주차장 있음)

미션 풀이 / 현장에서 찾기, 스토리북 참고, 인터넷 검색

- 1 테미마을박물관 상설전시실에는 대흥동과 대사동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 대흥동 : _____ - 대사동 : _____
- 2 대사동 느티나무는 수령 500년이 넘는 보호수입니다. 대사동의 옛 우리말 이름(지명)은 무엇인가요?
- 마을 이름 : _____
- 3 테미오래 옛충청남도지사공관의 상설전시 중 “이승만 대통령의 5일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9일 누구를 만나기 위해 어떤 비행장을 다녀왔나요?
- 누구 : _____ - 비행장 이름 : _____

새벽여행 : 대청호에서 해맞이 해볼래?

스토리 : 대청호오백리길 삼정생태공원, 로하스캠핑장 주변과 지명산 끝자락의 대청정 등에서 대청호를 배경으로 떠 오르는 환상적인 동네일출을 감상한다. 해피로드길을 걸으며 우리가 잘 몰랐던 대청호의 생태와 마을의 유래를 들으며 “대청호에서 해맞이 해볼래?”라고 질문하는 해맞이와 어우러진 새벽여행이다.

느낌 : 신선하다 / 멋지다 / 희망차다 / 장관이다 / 시원하다

공간 : 삼정동, 미호동, 대청호 일원

동선 : 3시간 20분 / 개인차량 이동

(출)참가자 집 → 삼정생태공원 이촌, 강촌 or 로하스캠핑장 대청정 산책 → 차운주, 차운도 정려각 → 금강 해피로드 → (도)참가자 집

동영상 해설 보기



전체 영상

위치 정보 / 출발과 도착은 투어 참가자의 집입니다.

- 1 로하스캠핑장 해맞이 : 대전 대덕구 미호동 715
- 2 삼정생태공원 : 대전 대덕구 삼정동 36
- 3 차운주차운도정려각 : 대전 대덕구 미호동 241-1
- 4 금강 해피로드 : 정려각에서 금강 수변 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미션 풀이 / 현장에서 찾기, 스토리북 참고, 인터넷 검색

- 1 금강의 발원지는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무순산, 무순샘에서 발원하나요?
- 산 이름 : _____ - 샘 이름 : _____
- 2 삼정생태공원은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촌마을과 “□촌” 마을입니다. 네모에 들어갈 마을 이름은 무엇인가요?
- 마을 이름 : _____
- 3 차운주, 차운도 정려각 동쪽 100m 부근에는 “□□□공판장”이 있습니다. 공판장 이름은 무엇이고, 무슨 뜻일까요?
- 공판장 이름 : _____ - 뜻 : _____

야간투어: 하늘과 별이 가까운 대동하늘공원

스토리 : 한밭 쪽, 대전(大田)의 동쪽 마을 대동,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골목 벽화를 만날 수 있다. “하늘과 별이 가까운 대동하늘공원”에서 원도심을 조망하며, 대전 최고의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야간투어이다.

느낌 : 그림다 / 환상적이다 / 신비롭다 / 도시적이다

공간 : 대동 일원

동선 : 2시간 / 개인차량 이동

(출)참가자 집 → 대동하늘공원 → (도)참가자 집

동영상 해설 보기



전체 영상

위치 정보 / 출발과 도착은 투어 참가자의 집입니다.

① **대동하늘공원** : 대전 동구 대동 산1-1번지 일대

* 주차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동하늘공원 카페 주변에 주차해야 합니다.

* 대동하늘공원은 해지는 시간을 확인하셔서 해지는 시간 40분 전까지는 꼭 도착해야 멋진 해넘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미션 풀이 / 현장에서 찾기, 스토리북 참고, 인터넷 검색

① 대동하늘공원이 있는 곳의 산 이름은 무엇인가요?

- 산 이름 : _____

② 대전은 각 구를 대표하는 산이 있습니다. 대덕구 계족산, 동구 식장산, 중구 보문산, 서구 구봉산, 유성구 금수산입니다. 이 중 하늘공원에서는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일까요?

- 산 이름 : _____

③ 옛날 대동리(大東里), 즉 대동의 서쪽 마을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 서쪽 마을 이름 : _____

④ 참가자 모두가 나오는 해넘이 사진을 꼭 찍어서 010-2405-4728로 보내주세요. 바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투어: 신채호와 권이진을 만나다

스토리 : 대전의 대표 인물은 조선시대 박팽년, 송시열, 신채호이다. 대전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난 단재 신채호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다. **생가에서 선생의 역사의식과 독립정신을 생각해본다.** 대전 중구 무수동은 안동권씨의 집성촌이다. 안동권씨의 대표 인물인 유희당 권이진의 별당에서 ‘호’를 배워보는 역사투어이다.

느낌 : 시골스럽다 / 대단하다 / 존경스럽다 / 강직하다

공간 : 무수동, 어남동 일원

동선 : 3시간 20분 / 개인차량 이동

(출)참가자 집 → 단재 신채호생가 → 무수동 유희당 → (도)참가자 집

동영상 해설 보기



단재 신채호 생가



유희당 권이진

위치 정보 / 출발과 도착은 투어 참가자의 집입니다.

① **단재 신채호생가** : 대전 중구 어남동 233

② **무수동 유희당** : 대전 중구 무수동 95

미션 풀이 / 현장에서 찾기, 스토리북 참고, 인터넷 검색

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 선언 이름 : _____

②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36년 2월 21일 중국에 있는 무슨 감옥에서 옥사하셨나요?

- 감옥 이름 : _____

③ 유희당 권이진 선생은 조선후기 노론, 소론의 영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고모부는 누구인가요?

- 외할아버지 : _____ - 고모부 : _____

④ 권이진 선생의 증조 할아버지 만회 권득기 선생이 후손들에게 남긴 십자훈(十字訓)이 있습니다. 그 십자훈 한자 10자 혹은 뜻을 적어보세요.

- 십자훈 : _____

출처 및 참고자료

- 대전시립박물관
- 대전시청 대전관광
- 스토리대전 대전이즈유 블로그
- 대전관광공사 블로그
- 대전 대덕구청
- 대전 동구청
- 대전 중구청
- 대전 서구청
- 대전 유성구청
- 대덕문화원
- 중구문화원
- 대전평생학습진흥원
- (사)대전문화유산올림
- 대전둘레산길잇기
- 갑천누리길
- 대전, 평화로 걷다-가이드맵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위키백과

대전의 숨겨진 이야기와 만나는
2022 대전스토리투어



발행처 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

전화 042-252-3305

디자인 모두의책협동조합

발행일 2022년 6월